

한국의 동북아역사재단이 주최하여 2013년 11월 7-8일, 파리의 루테시아(Lutetia) 호텔에서 개최된 « 동아시아 정세와 영토 문제 그리고 지도 제작에 관한 국제 학술 세미나 논문집 »에 게재된 논문.

프랑스의 한국학 : 기원, 과거, 현재

이진명 (李鎭明)

프랑스 리옹3대학교 명예 교수

프랑스의 한국학은 샤를르 아그노엘(Charles HAGUENAUER, 1896-1976) 교수가 마련한 제도적 기반(基盤) 위에, 1956년 1월 25일 이옥 (LI Ogg, 1928-2001) 교수가 파리대학교 문과대학인 소르본느 (Sorbonne) 대학에서 정식으로 첫 한국어 강의를 한 날을 그 기원으로 보고 있다.

이옥 교수는 소르본느 대학의 일본어 과장 샤를르 아그노엘 (Charles HAGUENAUER) 교수의 초빙으로 그해 1월 13일 프랑스에 도착하여 1월 27일 처음으로 한국어 강의를 했다.

그후 오늘날까지 프랑스의 한국학은 단계적으로 발전하여, 중국학이나 일본학에 이어, 프랑스의 교육-연구 체계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프랑스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과 한국에 관한 연구, 저술 활동은 17세기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부터 프랑스인들에 의한 한국에 관한 빛나는 업적들이 나왔다.

이 논문에서는 기원부터 현재까지 프랑스의 한국 연구,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교육이 걸어온 길을 더듬어 보고, 그 전망을 짚어 보고자 한다.

다만 밝혀 둘 것은, 필자는 같은 주제로 여러번 논문을 써서 발표했는데, 2006년 이전까지의 사실은 이미 발표한 논문들에서 따와서 정리하고 보충한 것이며, 2006년 이후의 사실은 처음으로 언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2006년 이전까지의 프랑스의 한국학의 발전 과정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려면 필자가 쓴 논문들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필자가 이 주제로 가장 먼저 쓴 것은 1986년에 프랑스 한국학 30주년을 기념하여 불어로 쓴 것이다. 그후에 발표한 3편은 모두 한국어로 쓴 논문들이다. 그것은 1992년 « 새국어생활 »에 쓴 것, 1997년 경기대학교 학술 발표회 논문집, 2002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학술발표회에 발표한 것, 2007년 한국 국제교류재단 발간 « 해외 한국학 백서 »에 실린 논문들이다.

따라서, 이번에 한국어와 불어로 작성하는 본 논문을 통해 불어권 독자들도 1986년 이후의 프랑스 한국학의 발전과 현황을 알 수 있게 하였다는 점이 새로운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다.

1. 프랑스 한국학의 기원

17세기 중엽 조선에 도래(渡來)한 벨테브리 (1627), 하멜 (체류 기간 1653-1666) 등의 화란 사람들이 한국(조선) 땅을 밟았다. 잔 잔세 벨테브리는 1627년에 한국에 도착하여

1670년에 한국에서 사망했다. 그는 한국 이름을 가지고 한국 여자와 결혼하여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두었다. 헨드릭 하멜 (1630-1692)과 그의 동료들은 1653년 한국에 도착하여 지내다가 1666년에 일본으로 도망한 후 홀랜드로 돌아왔다.

이들 이후, 서양인으로서로는 최초로 1836년에 조선 땅을 밟은 파리의 외방전교회 모방 (Maubant) 신부를 필두로, 이듬해 앙베르 (Imbert), 샤스탕 (Chastan) 신부가 숨어들어와 카톨릭 전교를 시작하면서부터 프랑스는 조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들 신부들이 써 보낸 글을 통하여, 폐쇄된 조선의 내부 사정이 조금씩 알려졌다. 그때까지 조선에 대한 지식은 1668년에 화란어로 저술되고, 외국어로는 최초로 1670년에 불어로 번역된 하멜의 <표류기>가 유일한 정보원(情報源)이었다.

1.1. 달레(Dallet)의 조선 천주교회사

<하멜 표류기> 이래 서양에서 간행된, 한국에 관한 최초의 자세한 기록은 1874년에 출판된,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 샤를르 달레 (Charles DALLET) 신부의 대저서(大著書) <한국천주교회사> (A5판, 전2권, 총 1174쪽 - 제1권 12 + 192 + 387쪽, 제2권 595쪽)이다.

이는 하멜 표류기 이후 200 여년 만에 서양에서 출판된, 한국(당시는 조선)에 관한 최초의 책으로, 조선 천주교회사의 기본 자료일 뿐만 아니라, 192 쪽에 달하는 서문에서, 한국의 지리, 역사, 사회, 정치, 종교, 대외 관계 등 다루지 않은 분야가 없으며, 한국 전도(全圖) 1 점도 들어 있다. 이 지도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독도)가 표시되어 있다.

1866년 병인양요가 있은 후 조선에 관한 여러 편의 글이 잡지에 발표되었다. 이때 프랑스 해군이 강화도에서 의궤(儀軌) 297권을 포함한, 고서 340 권, 보물급의 찬란한 17세기초에 그린 중국-한국-일본 지도 1점, 비명(碑銘) 탁본 7점을 가져와 국립도서관 (Bibliothèque nationale, BN)에 주었다. 이것이 서양 최초의 한국본 장서였다.

BNF 소장의 이들 외규장각 자료 중 의궤 297권이 한불 양국간에 20여 년 간 끌여온 우여곡절의 협상 끝에, 5년마다 갱신하는 대여의 형식을 빌어 2011년 5월에 사실상 한국에 반환되었다.

1.2. 초기의 한국어 연구

동양어학교 최초의 일본어 교수인 레옹 드 로니 (Léon de ROSNY, 1837-1914)가 1859년에 "한반도와 그 장래", 1861년에는 "중국어-한국어-아이누어 어휘", 1864년에는 "한국어에 관한 고찰"이란 글과 논문을 썼다. 이것이 한국어 대해 프랑스 학자가 쓴 최초의 글과 논문이다. 이 외에도 로니는 한국에 관한 6 편의 글을 더 썼다.

1880년에는 프랑스 선교사들이 저술한 한국 최초의 한국어-외국어 사전의 효시(嚆矢)인 <한불사전>이 빛을 보았고, 다음해에는 <한국어 문법>이 출판되었다. 이 두 책은 일본 요코하마에서 인쇄되었다. 그후 프랑스 외무부의 영사이며 중국어 통역관인 앙보-위아르 (C. IMBAULT-HUART)가 <프랑스인을 위한 한국어 구어 독본>을 1889년에 저술했다.

1886년에 한불 우호통상 조약이 체결되고, 동양어학교 중국어과를 1876년에 졸업한 콜랭 드 플랑시 (Collin de PLANCY, 1853-1923)가 1887년에 비준(批准)된 조약을

교환하러 한국을 다녀간 다음, 이듬해인 1888년에 서울 주재 초대 프랑스 대리 공사로 부임하여, 한불 간에 정식 외교 관계가 수립되었다.

1.3. 바라(Varat)의 민예품 수집

프랑스인에 의한 본격적인 한국 민예품과 도서의 수집은 민속 학자인 샤를르 바라(Louis-Charles VARAT, 1842-1893)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1888년 가을, 한국에 도착하여 다음해 초까지 머물렀다. 프랑스 교육부의 지원으로 "가장 알려지지 않은 나라 중의 하나"인 한국을 "탐험"하게 된 것이다. 그는 서울에서 프랑스 공사관의 지원을 받아, 인종학에 관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 조사하는 활동을 벌였다. 그 작업이 끝난 다음 서울을 출발하여, 대구를 거쳐 부산까지, 외국인으로서 최초로 한반도 남반부를 종단(縱斷)했다. 프랑스에 돌아와서는 여행담을 « 세계 일주 *Le Tour du Monde* » (1892)에 "한국 여행"이라는 78쪽의 글로 실었다. 그가 여행 중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그린 풍경과 인물 펜화 103점, 조선의 민속 판화 39점, 한양 지도 1점, 조선 전도 1점이 글의 중간 중간에 들어 있다.

그의 수집품은 1889년에 파리의 트로카데로 인류박물관에 전시된 후 민예품의 일부와 서적 50권이 1893년에 기메 박물관 (Musée Guimet)에 들어갔고, 상당 부분은 분산되었다. 기메 박물관에 있는 이 책들은 대부분 서민(庶民)을 위한 한글본으로, 점성술, 천문(天文)에 관한 것이며, <금방울전>과 같은 한글본, 그리고 한문본 고전 소설도 있다.

1.4. 홍종우의 문학 작품 번안 소개

이와 거의 같은 시기에,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홍종우(洪鐘宇, 1850-1913)가 프랑스에 발을 디뎠다. 그는 1890년 12월 파리에 도착하여 1893년 7월까지 체류하였는데, 파리의 동양 관계 기메 박물관 (Musée Guimet)에서 일하면서 지냈다. 그의 도움을 받아 소설가 조제프-앙리 로니 (Joseph-Henri ROSNY aîné, 1856-1940)는 <춘향전>을 번안하여 1892년에 당튀 (Dentu) 출판사의 문학 문고 중의 하나로 출판하였다. 이 문고는 당대 세계 최고의 소설가들의 작품을 포함하고 있다. 번안 춘향전이 이들 걸작들 가운데 하나로 소개된 것이다. 왜소한 책 (7,5 x 13,5 cm)으로, 조그만 글씨에 섬세하고 예쁜 펜화를 곁들였고, 역자의 작품에 관한 간단한 서문도 있다. 이 책은 또한 프랑스어로 번역된 동양 최초의 소설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나 중국 문학 작품 어느 것도 아직 서양에서 출판되지 않은 시기였다.

이 춘향전은 1956년에 핀란드 국립발레단 (헬싱키 소재)에 의해 « 사랑의 시련 »이란 제목으로 미하일 포킨(Mikhail FOKINE, 1880-1942)이 안무한 발레로 각색되어 무대에 올려지기도 했다는 사실을 연극 평론가 김승열이 2006년 10월에 언론을 통해 알렸다. 유명한 러시아 안무가 포킨(1880-1942)은 로니의 « 춘향전 »을 토대로 1936년에 발레 « 사랑의 시련 »을 만들었다.

홍종우가 프랑스를 떠난 뒤인 1895년에는 홍종우 번안의 판소리계 고전 소설 <고목생화 枯木生化>(1895)가 기메 박물관의 도움으로 에르네스트 르루 출판사에 의하여 출판되었다. 기메 박물관은 문학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떠나, "거의 알려지지 않은 한국 문학의 표본으로 출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책으로 낸다고 밝혔다. 이 두 번안 소설은 한국 문학으로서 뿐만 아니라, 동양 문학으로서 최초로

서구어로 번역된 책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의의(意義)가 자못 크다 하겠다.

1897년에는 홍종우와 앙리 슈발리에 (Henri CHEVALIER)가 한국어로부터 번역한 <각 사람을 보호하는 별을 길조로 만들며 한 해 운수를 알 수 있는 안내서>라는 제목의 글을 기메 박물관의 연보에 게재했다. 한국의 점성술을 프랑스에 소개한 것이다.

1.5. 플랑시(Plancy)의 고서, 골동 수집

프랑스 사람으로서 가장 많이 한국의 古書, 골동 서화를 수집한 사람은 빅토르 콜랭 드 플랑시 (Victor Collin de PLANCY, 1853-1923)이다. 그는 동양어학교에서 중국어를 공부한 후, 1877년 북경 주재 프랑스 공사관 통역에 임명되어 근무하고 있다가, 1886년 체결된 한불 우호 통상 조약의 비준서를 교환하기 위해 1887년 서울을 다녀갔다. 그는 1888년에 초대 주한 프랑스 대리공사에 임명되어 1891년까지 서울에 머물렀다. 그때부터 한국의 도자기와 고서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통역으로 서울에 부임해 온 모리스 쿠랑 (Maurice COURANT)에게 한국의 기원(起源) 으로부터 1890년대까지 한국에서 간행된 모든 책의 목록을 만들도록 권유했다.

플랑시는 많은 양의 책을 수집하여 파리의 동양어학교에 세 번 (1889, 1890, 1891) 보냈다. 이때 플랑시가 보낸 책이 동양어학교 최초의 한국본 장서(藏書)였다.

그후 5년간 일본에 근무한 후 다시 서울에 부임하여, 1896년부터 1906년까지 10년간 근무, 두 번에 걸쳐 모두 13년 간 한국에 체류했다.

그의 주선으로 1900년, 파리의 에펠탑 뒤 샹-드-마르스 (Champs-de-Mars)에서 개최된 만국 박람회에 대한제국이 참가했다. 한국관이 있었는데, 여기에 모조(模造)한 옥좌(玉座), 도자기, 칠기, 가구 등의 물품과 함께 플랑시가 새로 수집한 도서도 전시되었다. 여기 전시되었던 책의 대부분은 동양어학교 도서관으로 들어갔다. 그리하여 먼저 보낸 것과 새로 추가된 것을 합하여 630여 종(種) 1400여 권의 한국 고서가 동양어학교 도서관에 존재하게 되었다. 이로써 동양어학교 도서관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한국 고서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 고서들은 다양하다. 유교, 문학, 음악, 무술, 지리, 등. 이 학교는 언어 교육을 목적으로 하므로, 어린이 교육용 도서, 교리(敎理) 교과서, 예의 범절에 관한 책도 있다. 또, 특기할 것은 1880년대말 1890년대초에 서울의 서점에 나와 있던 고전 소설이 빠짐 없이 들어 있어 흥미있는 컬렉션이 되고 있다.

1890년대에, 고종황제는 1795년에 간행된 전8권으로 된 « 원행 을모 정리 의궤 園幸乙卯整理儀軌 »를 프랑스 대통령에게 선사하였는데, 이 책도 1900년 파리만국박람회에 전시된 다음, 동양어학교에 들어갔다.

위의 고서 이외에도, 플랑시는 임지(任地)인 중국, 한국, 일본, 방콕에서 골동, 서화의 수집을 계속하여, 소장하고 있다가, 1911년 3월 27-30일 나흘 동안 한국, 중국, 일본 관계 소장품 883점을 드루오 경매장 (Hotel Drouot)에서 경매에 붙였다. 이 컬렉션의 주를 이루는 것은 700여 점에 달하는 한국 것이었다. 카탈로그의 서문에, "구텐베르그가 유럽에 그의 경이로운 발명을 주기 훨씬 이전에 한국이 금속 인쇄술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 중 책으로는 <백운화상 초록 불조 직지심체 요절 (白雲和常抄錄佛祖 直指心體要節, 약칭 "직지, 直指">를 비롯하여 <삼강행실도> (1431), <오륜행실도> (1797), 1481년에 금속활자로 再印된 <경국대전> (1469),

<대전속록> (1492), <속대전> (1746), <소학집성> (1444), <금강경> (1488), 등 77권이었고, 책 이외에 초상화, 향로, 식기 등의 동제품과 금속 제품, 목제품, 칠기, 자개, 보석, 부채, 병풍, 비단, 가구, 2500개의 동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77 권의 고서 가운데 국립도서관이 58 권을 구입했다. 그외에도, 플랑시는 경매 카탈로그에 없는 책 50여 권을 국립도서관에 기증한 듯하다. 그리하여, 프랑스국립 도서관은 강화 외규장각 의뢰를 포함하여 450여 권의 한국 고서를 보유하게 되었다.

경매된 고서(古書) 중에서 가장 귀중한 <직지直指> (프랑스국립도서관 도서 번호 BN Mss. coréen 109)과 <육조대사 법보 단경> (BN Mss. coréen 110) (1290년에 목판 인쇄된 것)은 당시의 유명한 보석상이자 일본우키요에(浮世繪) 수집가 앙리 베베르 (Henri VEVER)가 구입하여 소장하고 있다가, 그의 사망 후 1953년에 다행히도 국립도서관에 기증되었다. « 직지 »는 구텐베르그의 금속인쇄본 보다 75년이나 앞서, 주조된 금속 활자로 인쇄된, 현존(現存)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다. 청주시(市)의 노력으로 « 직지 »는 금속활자와 함께 2001년 UNESCO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1.6. 펠리오(Pelliot)의 <왕오천축국전> 발굴

국립서관에는 또 귀중한 혜초(慧超) (704-787)의 « 왕오천축국전 (往五天竺國傳)» (290 x 3530 mm, BN Mss., Pelliot chinois 3532)이 있다. 학자들은 두루마리로 된 이 자료를 8-9세기경 당나라 사람의 필사본으로 보고 있다. 앞뒤가 잘려 나가고, 제명도 저자명도 없으며 한 줄에 30자, 230줄, 총 6000여 자의 짙막한 글이다. 당나라 중 혜림(慧林)이 지은 « 일체경음의(一體經音義) » (일종의 불교 사전) 제100권 속에 간략하게 들어 있는 <혜초왕오천축국전>에 보이는 낱말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음을 간파, 곧 이것이 오랫동안 없어진 줄로만 알았던 혜초의 여행기의 축약본임이 틀림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혜초는 이 글을 727년에 지었는데, 이 책의 제2,3권에 해당하는 이 두루마리는 프랑스의 동양학자 폴 펠리오 (Paul PELLIOU, 1878-1945)가 1907-1908년 중국 감숙성돈황 명사산 천불동(甘肅省 焯煌 鳴沙山 千佛洞)의 석실(石室)에서 다른 중국 자료와 같이 발굴하여 파리로 가져와 프랑스 국립도서관(BNF)에 보존되어 있다. 이는 당시의 중국과 인도와의 해로(海路)와 육로(陸路) 여로(旅路)였던 실크 로드(Silk Road)에 대한 8세기 자료로는 유일(唯一)한 것으로서, 그 사료적 가치가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프랑스 파리에는 국립도서관에 450 제명(題名)에서 2011년에 한국에 반환한 의뢰 297을 뺀 153종, 국립 동양어학교에 630 제명 (1 400권), 기메 박물관에 50 제명 등 전부 1 100여 종(種)의 한국 고서(古書)와 50여 점의 고지도가 있다. 유럽에서는 가장 많다. 고서 이외의 유물은 거의 없다. 플랑시가 몇 점의 신라 토기와 고려, 이조 시대의 도자기를 파리 근교의 세라믹 박물관에 기증했고, 국립 기메 동양박물관 (Musée National des Arts Asiatiques Guimet)과 파리 시립 체르누스키 (Cernuschi) 박물관에는 김홍도의 산수도, 신라 토기, 고려 자기, 이조 자기, 그림, 병풍, 가구 등 한국 유물들이 있으나 빈약하고 초라한 편이다.

19 세기말 - 20 세기초에, 호기심을 가지고 한국을 여행한 사람들의 여행기가 여러 편

나왔고, 그 중에는 에밀 부르다레 (Emile BOURDARET)의 <한국에서 (En Corée)>와 같이 상당히 많이 읽힌 책도 있었다. 그러나 한국이 일제의 지배하에 있던 시기에는 한국에 관한 저술과 출판이 거의 없었고, 서양에 조심씩 알려지기 시작하던 한국은 다시 잊혀진 나라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 시대에 외로이 한국을 학문적으로 깊이 연구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모리스 쿠랑이다.

1.7. 한국학의 개척자 쿠랑(Courant)

모리스 쿠랑 (Maurice COURANT, 1865-1935)은 프랑스의 한국학 개척자, 유럽 한국학의 선구자로 인정받으며, "불후의 명저", "한국 서지학의 금자탑"이라는 찬사(讚辭)를 받는 « 한국 서지 *Bibliographie coréenne* »를 저술하여, 한국 학자들에게도 잘 알려진 학자다.

동양어학교에서 중국어를 공부하고, 통역으로 북경에 근무한 다음, 주한 프랑스 공사관 통역으로 서울에 부임하여, 1890년 5월부터 1892년 2월까지 21 개월 동안 한국에 머무르면서, 초대 프랑스 공사관으로 와 있던 콜랭 드 플랑시 (Collin de PLANCY)를 보좌하였다. 이 두 사람과 천주교 한국 교구장이었던 뮈텔 (Mutel) 주교(主教)는 서울 체류 기간 동안 책에 대단한 열성을 보여, 같이 <조선 서지>를 낼 계획이었으나 나중에 플랑시와 뮈텔은 빠졌다.

쿠랑은 서울에 체류하는 2년 동안 서울 시내의 서점과 인근 사찰(寺刹) 등을 두루 찾아 다니며, 한국의 도서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파리에 돌아와서는, 국립도서관에서 중국, 일본, 한국 책을 정리, 목록을 작성하는 작업을 했고, 서울에서 수집한 자료와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서, 동양어학교에 있는 고서와 개인이 소장한 책, 그리고, 유럽 여러나라에 있는 한국 책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망라한 전3권(全3券)에 달하는 « 한국 서지 (韓國書誌) »를 1894년에서 1896년 사이에 간행(刊行)했고, 증보판인 제4권은 1901년에 냈다. 이 책에는 1899년까지 한국에서 나온 서적을 거의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책에 따라서는 목록의 범위를 넘어 간단한 내용 소개도 있다. 한국 역사상 초유(初有)의 일이었다. 인용된 책의 수는 3821 종이며, 고전 소설도 포함되어 있다. 도서의 내용 가운데 중요하거나 흥미 있는 부분, 특히 그림이나 도형은 그대로 복사하여 전재(轉載)하였다. 이 책의 100여 쪽에 달하는 서문에서는 한국의 문화를 소개했는데, 이는 그때까지 한국에 관하여 외국인 이 쓴 글 중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프랑스 국립 학술연구원 (CNRS)의 다니엘 부셰 교수는 평가한다. 이 책의 제4권에 « 직지直指 »도 포함되어 있다. 쿠랑은 이 저서로 프랑스 한림원이 수여하는 스타니스라스 줄리앙 (Stanislas JULIEN) 상을 받았다.

쿠랑은 <조선서지> 이외에도 한국에 관한 글과 논문을 50여 편 남겼다. 쿠랑의 박사 논문은 중국 음악에 관한 것인데, 그 논문의 부록에 한국 음악을 소개했다. 1898년에는 광개토 대왕 비석에 대한 30 쪽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 1900년 파리에서 개최된 만국 박람회에 대한제국이 참가하여 전통 물품을 전시하였다. 쿠랑이 한국관을 소개하는 <1900년 서울의 추억>이라는 글을 써서 팜프렛을 만들었다.

쿠랑은 또 1904년에 관광 안내 <한국>를 저술하였다. 이는 권위 있는 아샤프트 출판사의 마드를 관광 가이드 컬렉션 중의 하나인 <중국 북부 및 한국> 편에 들어

있으며, 한국 부분은 45쪽에 달한다. 그는 한국과 주변 정세, 외교 관계, 관제(官制) 등에 관해서도 썼다. 그는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한국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으며, <조선서지> 외에 50여 편의 논문과 글을 썼는데, 몇 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에 관한 것이다. 프랑스의 한국학 학자들은 쿠랑을 프랑스의 한국학 선구자로 치고 있다.

그는 동양어학교 교수 자리를 기다리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1900년에 리용대학교에 교수로 임명되어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가르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강의도 하였다. 1910년 불행히도 오른 손을 다쳐 더 이상 저술 활동은 없었다. 그는 리용대학 총장과 함께 일본 도쿄에 일불회관(佛日會館)의 설립에 기여하였으며, 리용에 불중학원(佛中學院) 설립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알아주는 사람도 거의 없는 프랑스에서, 홀로 한국을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진실로 한국을 사랑하면서, 만년(晩年)을 쓸쓸하게 지내다가 1935년에 세상을 떠났다.

2. 프랑스 한국학의 과거 (1956-1990)

2.1. 초창기의 한국어 교육 (1956-1990)

프랑스의 동양 언어에 관한 교육은 19세기 중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럽의 동양어 교육의 본산인 동양어학교 (Ecole Nationale des Langues Orientales Vivantes, ENLOV ; 현재의 INALCO)는 프랑스 혁명의 와중(渦中)인 1795년 3월 30일 법령으로 설립되어, 1995년에 200주년 행사를 치렀다.

동양어학교에 1840년 1월 20일 처음으로 중국어 강의를 실시되었다. 강사는 앙토안느 바쟁 (Antoine BAZIN, 1799-1862). 그는 1843년 중국어 강좌가 정규 과정으로 설치되면서 정교수에 임명되어 1862년 타계(他界)할 때까지 재임함으로써 중국어 교육의 효시(嚆矢)가 되었다.

일본어는 1863년 5월 5일 레옹 드 로니 (Léon de ROSNY)가 처음으로 "공개 무료 일본어 강의"를 실시한 후, 1868년까지 비정규 강의로 계속 되었다. 로니는 동양어 대학에서 중국어를 공부하였으며, 일본어는 독학하였다. 그는 1868년 일본어 정규 강좌가 설치되면서 최초의 일본어 교수가 되어 1907년까지 39년간 재임하였다.

그후 발전을 거듭하여, 1세기 후인, 1970년대 중반부터 1995년까지 동양어문 (東洋語文) 대학교 (INALCO)의 일본어와 중국어의 전 과정 등록생 총 수는 1995년경에는 매년 각 언어에 약 1500명이며, 매년 학위 취득자는 각 언어에 150여 명에 달했다. 동양어대학교 외에도 파리7대학교, 전국의 여러 지방 대학교 및 이공계 또는 상업계 전문 대학 (Grandes Ecoles), 그리고 상당 수의 고등학교에서도 이 두 동양어를 제2외국어 및 제3외국어로 가르치고 있다.

한국어-문화 교육은 중국어에 비해 116년, 일본어에 비해 93년이나 늦게 시작되었다. 이는 한국의 비중(比重)이 동양의 대국인 중국이나 일본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도 있겠으나, 보다 큰 이유는 35년 간의 일제(日帝)의 지배, 한반도의 분단, 한국 동란 등의 한민족의 시련, 가난, 정치적 독재 시대가 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출발을 늦추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한 어려운 조건에서나마 1956년에 한국어 교육이 시작되어, 2013년 현재 8개 대학교에 확고하게 틀이 잡혔다.

이들 8 개 대학교 중, 한국학 분야에서 대학 교육의 전과정, 즉 학사 (Licence 3년), 석사 (Master, 2년), 박사 (Doctorat, 3년)를 이수(履修)할 수 있는 대학은 파리7대학교 (동양학부 한국학과)와 동양어대학교 (유라시아학부 한국학과)뿐이다. 고등사회과학대학원 (EHESS)에서는 석사 (Master, 2년)와 박사 (Doctorat, 3년) 과정만 이수할 수 있다.

2.2. 샤를르 아그노엘의 제도적 기틀 마련

프랑스 한국학의 제도적인 기틀은 샤를르 아그노엘 (Charles HAGUENAUER, 일본학-한국학, 1896-1976) 교수의 노력으로 비롯되었다. 그는 당대 프랑스 제일의 일본 고고(考古) 인류학 및 언어학 분야의 석학이었다. 동양어학교의 일본어 창시자 레옹 드 로니 (Léon de ROSNY, 재임 1868-1907), 그의 후임 조제프 도트르매르 (Joseph DAUTREMER, 재임 1907-1931)에 이어 제3대 일본어 정교수가 되었다 (재임 1932-1953, 그 후 1967년까지 소르본느 대학 정교수). 그는 유서 깊은 동양어대학에서 1944-1945년부터 일본어-문화와 더불어 한국어-문화도 강의했다. 그 당시 한국어 수강생은 후일(後日)의 동양 예술사 전문가 위게트 루세(Huguette ROUSSET)를 포함한 5명이었다. 그러나 2차대전 중 유대인 박해를 피해 아그노엘이 지방으로 피신하게 되어 그의 강의는 일시 중단되었다.

아그노엘은 국립 응용사회과학 대학원 (Ecole Pratique des Hautes Etudes, EPHE)에서 1933년부터 1967년까지 일본 및 한국의 종교에 관한 강의도 하였다. 그 다음으로 일본학 학자 아르트무트 로테르문트 (Hartmut ROTERMUND)가 여기서 1968-1970년 한국의 종교에 관해 강의했다.

세계 제2차대전 종전 후, 파리대학교 문과대학인 소르본느(Sorbonne)에 1954년에 일본학과가 설치 되었다. 이에 맞추어, 동양어대학 일본어 교수이던 아그노엘이 소르본느 대학 정교수에 임명되어 1967년까지 재임하였다.

샤를르 아그노엘의 노력으로 1956년부터 한국어 강의를 개설 되었다. 이 학과는 1959년 1월 17일, 아그노엘이 제의하여, 문과대학 (당시 학장은 피에르 르누뱅 Pierre RENOUVIN) 교수 총회에서 "한국학 대학 강좌 (Certificat d'études supérieures de coréen)"를 설치하기로 의결하고, 그해 6월 1일 교육부 장관령으로 동 과정이 인가되었다. 그와 동시에 일본학과는 일본-한국학과 (Section d'Etudes Japonaises et Coréennes)로 명칭을 바꾸었고, 한국학 강좌는 학사 학위 (Licence)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4 개의 필수 과정 (Certificat) 중의 하나로, 대학의 정식 교과 과정에 올랐다.

1956년, 파리대학교 문과대학 일본학과는 학과장 아그노엘 (당시 60 세)과, 일본어 전임강사 모리 아리마사 (參有正, 1911-1976, 당시 45 세, 1955년부터 일본어 전임강사, 파스칼 전문가이며, 일본의 유명한 수필가)와 한국어 전임강사 이옥 (당시 28세), 세 사람으로 운영되었다. 1958년에 일본어 전임강사 후지모리 분키치(Fujimori BUNKICHI)가 추가되어 1969년까지 그 체제가 계속되었다

이로써 한국어는 파리대학교 문과대학에서 정식으로 가르치는 17번째의 외국어가 되었다. 1962년에 앙드레 파브르가 최초로 이 강좌를 이수했고, 마르크 오랑주 (Marc ORANGE)가 두번째로 1966년에 이수 했다.

2.3. 이옥(李玉)에 의한 본격적인 한국어 교육의 시작

이옥은, 샤를르 아그노엘 교수의 초빙으로, 1956년 1월 13일 파리에 도착하여 1월 25일 17-19시에 소르본느(문과) 대학의 제2강의실에서 처음으로 한국어를 강의했다. 아그노엘 교수의 권고로 첫 한국어 강의에 출석한 프랑스 학생은 네 명이었다. 그들은 후일(後日)의 동양어 대학교 교수 앙드레 파브르 (André FABRE), 외교관 장 페랭 (Jean PERRIN), 해군 장교 출신 은행 간부 장 에스맹 (Jean ESMEIN), 일본의 텔레비전 스타인 프랑소아즈 모레상 (Françoise MORECHAND)이었다.

소르본느에 이어, 1959년에는 동양어학교(Ecole Nationale des Langues Orientales Vivantes, ENLOV, INALCO의 전신 前身)에 정식으로 한국어 전공 국가 학위(DULCO)가 신설되었다. 동양어학교는 200년의 전통을 가진 유서 깊은 학교다. 프랑스 혁명의 와중인 1795년에 외교관, 통역관 및 동양 전문가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유럽에서의 동양어 교육의 요람으로,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서 동양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공부했다. 이 학교에서는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등의 유럽 언어를 제외한 전 세계의 외국어를 가르친다.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히브리어, 한국어 등 몇 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희소(稀少)한 언어들이다. 이로써 한국어는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42번째 언어가 되었다.

이 학교의 학생들은 대개 두 개의 동양어를 동시에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여기서 한국어 과정을 2년 또는 3년에 마친 다음, 소르본느의 학사 과정(3학년)에 등록하여 학위를 마쳤다. 당시에는 같은 교수진이 동양어학교와 소르본느의 강의를 겸하여 했다. 동양어학교의 한국어 강의 수강생은 한 학년에 3-4명이었고, 중국어나 일본어도 10명에서 20명 내외였다. 이옥은 1960에서 1965년 사이는 강사로, 1965년부터 1969년까지는 전임 강사로 재직한 후, 1969년 파리7대학교 부교수에 임명되어 7대학교로 옮기고, 앙드레 파브르 (André FABRE, 1932-2009)가 정교수가 되어 뒤를 이었다.

또 1959년에 소르본느에 한국학연구소(Centre d'Etudes Coréennes)가 설치되면서 아그노엘이 소장이 되었다.

위 세 기구와 한국어 강좌들은 1969년까지 10년 간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2.4. 1969-1970년 프랑스의 대학 학제 개편과 한국학

1968년 대규모의 학생 시위가 있었고, 대학생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기존 시설로는 이를 수용할 수 없어 대폭적인 대학 교육 제도의 개혁과 확장이 단행되었다. 그때 존속하던 대학교의 단과 대학들이 각기 독립하여, 핵을 이루어, 이를 중심으로 종합 대학화의 길을 걸었고, 동시에 많은 대학이 신설되어 파리에 하나 뿐이던 대학교가 1대학교부터 13대학교까지 열셋으로 늘어났으며, 지방 대도시의 대학교는 대개 하나에서 셋으로 증가했다.

학제 개편과 때를 같이 하여 소르본느대학의 일본-한국학과는 1970년에 일본학과와 한국학과로 분할, 독립하여, 중국학과 및 월남학과와 함께 동양학부 (UER de l'Asie

Orientale ; UER : Unité d'Etude et de Recherche 교육 연구 단위 ; UER는 나중의 UFR : **Unité de Formation et de Recherche**)를 구성하여 파리7대학교에 소속하게 되었다.

동양어학교에서는 한국어와 일본어가 하나의 학부 (**Département Corée-Japon**)를 구성하여 존속하게 되었다.

소르본느의 한국학연구소 (**Centre d'Etudes Coréennes**)는 파리대학교의 해체와 더불어 1973년에 프랑스 최고의 교육 기관인 콜레주 드 프랑스 (**Collège de France**)에 속하게 되었다.

2.5. 파리7대학교 (Université Paris Diderot - Paris 7) 동양학부 (UFR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 한국학과 (Section d'Etudes Coréennes)

대학 제도 개편에 따라 신설된 파리7대학교는 파리의 중심가 세느 강변의 주시유 (**Jussieu**)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파리6대학과 같이 있었다. 중앙의 23층 건물을 중심으로 대학교의 캠퍼스에는 두 대학교의 여러 시설들이 있었다.

동양학부 (**UFR de l'Asie Orientale**)는 중국학, 한국학, 일본학, 월남학의 4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동양학부 내의 한국학과 (**Section d'Etudes Coréennes**)는 70년대 초에는 이옥 과장을 중심으로 강사 2명이 있었다. 프랑스인 강사들 외에도 한국인 강사들이 번갈아 가며 1-2년씩 강의를 맡아 왔는데, 이들은 박사 논문을 준비 중이었거나 교환 교수로 온 한국의 대학 교수들이었다.

1988년까지의 교수진은, 부교수로 있다가 1983년에 정교수가 된 이옥 (李玉, **LI Ogg**, 한국 고대사), 1982년에 전임 강사가 된 최승언 (崔勝彦, **CHOI Seung-un**, 언어학), 1984년에 전임강사가 된 마르틴 프로스트 (**Martine PROST**, 언어학)였다.

교과 과정은 1970년부터 교양과정 (**DEUG, 1-2학년**), 학사 (**Licence, 3학년**), 석사 (**Maîtrise, 4학년**), 박사 준비 과정 (**DEA, Dipôme d'études approfondies, 5학년**), 박사 과정 (**Doctorat**) 까지였고, 전 과정의 학생 수는 해마다 다소의 변동이 있었으나,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는 20-30명이었고, 1988-89 학년도 1-4학년 등록생 수는 69명이었다.

한국학과는 상당히 규모가 큰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장서의 수는 25 000여권에 달했다.

이옥은 파리7대학교 한국학과를 이끌어 나가는 외에도, 국립 고등 응용사회과학 대학원 (**EPHE**) 제4학과(언어-역사)에 한국 고대사 강좌가 개설되어 1970년부터 1983년까지 강의했다. 그 다음 다니엘 부세가 1994년까지 한국 고전 문학과 문헌학을 강의했다.

이옥은 또 동 대학원 (**EPHE**) 제5학과(종교)에 한국 종교에 관한 강좌를 맡아 1970년부터 1983년까지 출강했다. 1986-1995년 사이에는 알렉상드르 기요모즈가 한국의 샤머니즘에 대해 강의했다. 언어 학자 최석규는 1977년부터 1993년까지 이 학교에서 구조 언어학 강의를 했다.

그는 또 아그노엘이 은퇴한 후, 그의 후임으로 콜레주 드 프랑스 (Collège de France) 소속 한국학연구소 소장(1970-1993)을 역임했고, 1976년에 화란의 포스 (Vos), 영국의 스킬랜드 (Skillend)와 함께 유럽 한국학 학회 (AKSE) 창설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동 학회의 총무(1976-1978), 부회장(1978-1980), 회장 (1980-1982)을 지냈다.

파리7대학 한국학과 1-4학년 (Licence 3년, Maîtrise 1년) 전체 학생 수는 1989-1990에 54 명으로 88서울 올림픽의 영향을 받아 일시적으로 학생 수가 증가했다가, 1990-1991년 26 명, 1991-1992년 27 명, 1992-1993년 33 명, 1993-1994년 46 명, 1994-1995년 33 명이었다. 1980년대 말까지는 한국어 등록생 수가 월남어보다 많았으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월남어가 한국어를 앞섰다. 중국어는 400여 명, 일본어는 300여 명이었다.

2.6. 국립동양어대학교 (INALCO, Institut National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 일본-한국학부 (Département Corée-Japon) 한국학과 (Section d'Etudes Coréennes)

국립동양어문대학교 (國立東洋語文大學校)는 대학 학제 개편시인 1969년에 파리3대학교에 소속되었고, 파리 6구(區)의 릴가(街) (rue de Lille)의 본부 건물이 협소하여 대부분의 학과는 그해에, 전에 NATO 본부였던 파리 16구의 도핀느 (Dauphine) 건물로 이전하였다. 동 대학교는 1985년에 파리3대학교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단일 대학교로 되었다.

여기에 있던 한국어 과정은 1969년에 한국-일본학부 (Département Corée-Japon) 내의 한국학과 (Section d'Etudes Coréennes)로 되었고, 이때 앙드레 파브르 (André FABRE, 언어학)가 정교수에 임명되었다. 그는 1989년까지 한국-일본학부의 부장 겸 한국학과장을 맡았다. 교수진은 앙드레 파브르 정교수 외에 1972년부터 전임 강사 이병주(언어학), 1975년부터는 전임강사 심승자(언어학)가 추가 되었고, 이들 외에 시간 강사가 두 세 명 더 있었다. 이 체제는 1995년에 파트릭 모뤼스(Patrick MAURUS)가 부교수로 임명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한국학과는 1960년에 정규 한국어 전공 국가 학위 DULCO (2-3년 과정을 마치면 수여하는 국가 학위, 대학교의 DEUG와 동등함) 과정을 시작하여, 1963년에 1 명이 이 학위를 받은 이래 1994년까지, 전 과정 (교양 과정 DULCO, 학사 Diplôme supérieur, 석사 DREA)에 74 명이 한국어를 전공하여 학위를 받았다. 학위 취득자 수 면에서 보아 한국어는 이 학교의 30 번째 언어였다.

여기서는 1-4학년까지의 학사 및 석사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며, 박사 학위는 주로 파리7대학이나 고등사회과학 대학원에서 했다.

1990년대 한국어과 학생 수는 한국어 주(主)전공자와 부(副)전공자를 합하여, 전 과정에 100여 명 내외였다.

2.7. 지방 대학의 한국어 강좌 개설

1980년대에는 한국어 교육이 지방 대도시의 대학으로도 확산되었다. 1983년에

리옹3대학에, 1986에는 보르도3대학교에, 그 이듬해인 1987년에는 르 아브르 대학교에도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었다.

2.7.1. 리옹3대학교(Université Jean Moulin – Lyon 3)

파리에서 동남쪽 스위스 방면으로 450 km 떨어진 프랑스 제2의 도시 리옹에 소재한 리옹3대학교에 1983년에 한국어 강의가 개설되었다. 강의를 맡게 된 이진명이 1983년 10월 21일(금), 28일, 11월 4일의 3 회에 걸쳐, 동 대학교의 성인교육원 (Formation Appliquée Continue)에서 한국 문화에 관한 강연을 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수강생은 일반인 23 명이였다. 한국어 대학 학위 (Brevet) 과정의 첫강의 3 시간 (언어 2 시간, 문화 1 시간)은 신학년도 개강 첫주인 11월 7일(월)에 있었다. 수강생은 4 명이였다. 이 강좌는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한 학생과, 한국어만 배우고자 하는 일반인이 같이 수강하므로 오후 5 시 또는 6시부터 실시된다.

1988년에는 한국어 전공 대학 1-2학년 과정(DEUG)이 설치되어 2000년까지 지속되었다.

학생 수는 해마다 다소의 변동이 있었으나, 1988-1989년부터 실시된 한국어 전공 1-2학년 과정(DEUG)의 각 학년에 2-5 명이였다. 한국어 제3외국어 겸 대학 학위인 Brevet에는 1학년 15 명, 2-3학년에 각 4-5 명씩이였다. 리옹은 파리 다음의 프랑스 제2의 도시이지만 동양어에 관심을 가진 학생 수는 비교적 적은 편이어서, 중국어나 일본어도 DEUG 과정의 각 학년에 20-30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학 1-2학년 과정인 한국어 DEUG는 현대 그리스어(1-4학년 과정) 및 히브리어(3-4학년 과정)와 함께, 학생 수가 적어 2000년에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못해 폐지 되었다. 따라서 2001학년도부터는 한국어가 제2외국어 필수 선택 과목 겸 일반인을 위한 언어 강좌 중의 하나로 남게 되었다. 강의는 1-3 각학년 매주 1.5시간 2회, 계 3시간이었다. 교수진은 1988년에 부교수에 임용된 이진명(李鎭明, LI Jin-Mieung) 1명이였고, 때에 따라 시간 강사가 한 명 또는 두 명 더 있기도 했다.

파리-리옹 간에는 고속 전철 TGV가 1981년에 개통되어 시속 270 km로 운행되므로 파리에서 TGV로 정확히 2시간 거리이다. 이진명은 파리에 거주하면서 리옹으로 출강하다가, 2001년부터는 리옹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매주 4일 리옹에 머물면서 강의했다.

2.7.2. 보르도3대학교(Université Michel de Montaigne - Bordeaux 3)

파리에서 남서쪽, 스페인 방면으로 600 Km 떨어진 대서양 변의 보르도에 소재하는 이 대학에는 1986년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었다. 한국어는 제2외국어 필수 선택 과목과 대학 학위로 가르쳤다. 교수진은 책임자 김보나 1명이였다. 김보나(KIM Bona)는 1986-1993년 사이는 시간 강사로 있다가 1993년에 부교수로 임명되었다. 그는 처음 여러 해 동안 파리에서 보르도에 매주 출강하다가 1993년에 보르도로 이주했다. 그간 일부만 개통되어 운행되던 파리-보르도 간의 시속 300 km의 대서양 TGV (고속 전철)가 1992년에 완전히 개통되었다.

강의는 1-2학년은 매주 2시간, 3학년은 3시간이었다. 수강생은 예상 외로 많아 1

학년에 50 명, 2학년 15 명, 3학년 10 명으로 모두 70-80여 명이나 되었다.

2.7.3. 르-아브르 대학교 (Université du Havre)

파리에서 서쪽으로 150 Km 떨어진 대서양 연안(도버 해협)의 항구 도시인 르-아브르(Le Havre)의 르-아브르 대학교 (국제 경제 대학, **Faculté des Affaires Internationales**)에서도 한국어-문화를 가르친다. 중국어, 일본어에 이어, 한국어 강좌는 1987년에 개설되었다. 이 세 개 언어가 동양어과(**Section des Langues Orientales**)를 구성하고 있었다.

1990년대에, 한국어-문화 강좌는 매 학년 주 5 시간, 5 년 간, 즉 박사 과정 (DESS) 첫해까지 실시되며, 수강생은 모두 40-50여 명이었다. 이들은 경제와 무역을 공부하는 학생들이었다. 동양어대학교 전임강사 심승자(SHIM Seung-ja)가 1987에서 1991년까지 출강했고, 최은숙 (CHOI-CHABAL Eun-sook)이 1989년부터 강사로 있다가 1992년에 부교수에 임명되어 한국어 강좌를 책임 맡고 있었다. 부교수 최은숙 외에 시간 강사도 한두 사람 더 있었다.

2.8. 고등사회과학대학원 (EHESS, Ecole des Hautes Etudes en Sciences Sociales)

이 학교는 석사와 박사 과정을 주로 하는 사회 과학 대학원이다. 동 대학원의 학술위원회 (Conseil scientifique)는 1989년 6월에 동 대학원에 "한국 경제-사회 연구 그룹 (GRESKO : Groupe de recherches sur l'économie et la société de la Corée)"을 설치할 것을 의결하고, 정성배 (Bertrand CHUNG)를 책임자로 임명하였다. 정성배는 1990년에 부교수에, 1995년 9월에 정교수에 임명되었고, 이로써 EHESS에 한국학이 자리 잡게 되었다.

EHESS에는 정성배 외에 알랭 텔리센 (Alain DELISSEN)이 있다. 한국사와 도시학이 전문인 텔리센은 1994년에 국립 학술연구원 (CNRS)의 연구원으로 임명되어 리옹의 동아시아연구소 (Institut d'Asie Orientale-CNRS URA 1579)에 소속되어 있다가, 1995년 EHESS에 부교수로 왔다.

1991년에 발족하여 파리7대학교에 부속되어 있던 CNRS의 한국학 연구그룹 URA 1474 (책임자: 이옥, 다엘 부셰)가 1995년 1월 1일부로 EHESS에 부속하게 되면서 GRESKO를 대체했다. 그와 동시에 알렉상드르 기오모즈 (Alexandre GUILLEMOZ)도 CNRS에서 EHESS 부교수로 자리를 옮겨 URA 1474 (후의 UMR 8173)의 책임자가 되었다. 기오모즈는, 1998년에 정년 퇴임한 정성배의 후임으로, 1999년 대학 정교수급인 학술부장이 되어 2007년 정년 퇴임할 때까지 활동하였다.

EHESS의 GRESKO/URA 1474 (나중에 UMR 8173으로 됨)는 그후에 한국연구소(CRC – Centre de recherches sur la Corée)가 되며, 동 연구소는 단일 연구 단위인 URA, 그후에는 UMR로 개편된 후, 그 다음에 신설된 « 중국-한국-일본 연구 단위 8173 » (UMR Chine Corée Japon – UMR 8173 – CCJ, EHESS, CNRS, 파리7대학) 내의 한국 연구 담당 구성원이 된다. 이 연구소는 위 세 사람이 주관이 되어 매년 한국의 사회-경제에 관한 학술 발표회를 개최했다. 1990년 4월에는 "한국 사회와의 만남", 1991년 3월에는 "한국의 전통과 발전", 1993년 5월에는 "한국 경제"란 제목으로 학술

발표회를 가졌다. 특히 1996년 5월 13-15일에는 한국, 미국, 유럽 여러 나라 및 프랑스 학자들이 참석한 "서울에 관한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2.9. 국립학술연구원(CNRS,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국립학술연구원의 제33분과(section 33 – 근현대 사회)에 1970년대 초부터 3 명의 한국 전문가가 소속되어 있었다. 동 연구원에는 마르크 오랑주(Marc ORANGE, 역사학)가 1965년에 최초로 맡을 들여 놓은 후, 1972년에는 다니엘 부셰 (Daniel BOUCHEZ, 고전 문학), 1979년에는 알렉상드르 기요모즈(Alexandre GUILLEMOZ, 인류학, 무당 연구)가 연구원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파리7대학에서 강사로 강의를 하기도 했고, 다니엘 부셰는 1986-1988년에 파리7대학교 동양학부 부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마르크 오랑주는 콜레주 드 프랑스의 한국학 연구소 소장 이옥 교수를 도와 그 운영을 담당했다. 기요모즈는 나중에 고등사회과학대학원에 전임하여 정년 퇴임할 때까지 활동하였다. 이들 외에 연구주임 나탈리 튀카도 있으나, 그는 종교학 분야이다.

이 외에 프랑스 극동학교 (E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에는 엘리자베트 샤바놀(Elizabeth CHABANOL, 고고학)이 2001년에 부교수로 임명되어 한국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 학교는 고려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내에 출장소를 두고, 그 책임자로 베르트랑 정(성배)이 있다가, 정성배 퇴임한 후, 엘리자베트 샤바놀이 출장소를 맡아 서울에 주재하고 있다.

2.10. 학술 단체 및 도서관

2.10.1. 콜레주 드 프랑스의 한국학연구소 (CEC / IEC)

학술 기관으로는 1969년에 아그노엘이 파리대학교의 문과대학인 소르본느에 설립한 한국학연구소(Centre, 그 다음 Institut, d'Etudes Coréennes)가, 1969-1970 파리대학교의 해체로 1973년에 콜레주-드-프랑스(Collège de France)에 속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59-1976년 사이는 아그노엘이 소장으로 있었고, 그에 이어 1993년까지 이옥이 소장으로 있다가 정년 퇴임하고, 1994년 2월 마르크 오랑주가 소장이 되었다.

한국학연구소는 다른 동양 연구소들과 함께 1989년에 현재의 파리 5구(區) 카르디날 르무안느 가(街) 52 번지(52, rue Cardinal Lemoine, 75005 Paris)로 이전했다. 이곳에 온 한국학연구소는 전보다 넓은 면적에 사무실과 5 000 권의 한국 관계 도서 및 모리스 쿠랑이 소장했던 장서도 보유한 도서실도 갖추고 있다.

2.10.2. 프랑스 한국연구회 (AFPEC)

공식적인 교육-연구 기관 외에, 1986년에 한국학 관련 교육-연구자들의 친목 단체인 프랑스한국연구회 (Association française pour l'Etude de la Corée, AFPEC)가 결성되었다. 그 목적은 프랑스에서 한국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한국에 관한 서적의 출판을 촉진하며, 한국과 프랑스 간의 교류와 유대를 증진하는 데 있다. 1985년 5월 24일 창립 총회를 개최하여 다니엘 부셰를 회장으로 뽑았다. 그 후 마르크 오랑주가 회장을 지낸 다음, 정성배, 알렉상드르 기요모즈, 다시 마르크 오랑주가 회장을 지냈다. 회원은 50여 명이며, 학술 발표회, 년1회 회보(Bulletin de l'AFPEC) 발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2.10.3. 유럽한국학학회 (AKSE)

프랑스의 한국학 학자들은 유럽한국학학회(AKSE,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in Europe) 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학회는 화란의 포스(Vos), 영국의 스킬렌드(Skillend), 프랑스의 이옥(Li Ogg, 李玉)이 창립 위원이 되어 1976년에 설립되었다. 이듬해에 제1회 유럽 한국학 대회를 가진 이래, 1991년 프랑스의 두르당(Dourdan) 대회까지 학술 대회를 15 회 개최하였다. 그 후는 매 2년마다 유럽 여러 나라를 돌면서 학술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프랑스 학자로 이옥, 다니엘 부세, 앙드레 파브르, 알렉상드르 기요모즈가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3. 프랑스 한국학의 현재 (1990-2013)

1990-2006년 사이의 프랑스 한국학은 과거에 비해 제도적인 면에서는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교수진의 면에서는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즉 프랑스 한국학의 제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장년층과 1.5세대라 할 수 있는 층의 정년 퇴임으로 그 자리에 젊은 층이 충원된 시기였다.

3.1. 프랑스의 대학 정교수 및 부교수 임용 절차

이상에서 언급한 모든 프랑스의 대학과 연구 기관은 국립이며, 이에 소속한 교수 및 연구원은 프랑스 국가 공무원이다. 프랑스 대학의 교직은 정식 교수 요원으로 대학정교수(professeur des universités, Pr/PU) 및 부교수(maître de conférences, MC/MCF)의 두 직급이 있다. EHESS의 학술부장(directeur d'études)과 CNRS의 연구부장(directeur de recherche)은 대학 정교수와 동급이다. CNRS의 연구원(chargé de recherche)은 대학의 부교수와 동급이다.

정규직 교수-연구원의 수가 프랑스 한국학의 위상(位相)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變數)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단 국가 교육 공무원인 교수나 연구원에 임용(任用)되면 65세까지 직장이 보장되는 종신제이므로, 해당 기관에 한국어 교육이나 연구가 결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65세 정년(停年)에서 3년 연장이 가능해져서 68세가 되는 해의 학년말까지 근무(勤務)할 수 있다.

프랑스는 오늘날도 보수적인 중앙 집권적 관료주의 국가이고, 모든 교육은 국가에서 담당한다. 정부 각 부서의 공무원은 직급에 따라 «집단(集團, corps)»을 형성하고 있는데, 각 집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수준에 요구되는 학위 및 자격을 갖춘 다음,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되거나, 또는 각 집단에 고유한 공개 경쟁 시험을 거쳐 선발되도록 되어 있다. 일종의 과거 제도 같은 것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 교직자의 경우, 대학정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박사학위 지도(指導) 자격(資格) 학위(HDR, Habilitation à Diriger des Recherches, 과거의 국가 박사과 같으나 절차가 길고 까다로움)»라는 국가 학위를 반드시 해야 한다. HDR를 하려면 자신의 업적을 제출하고 박사 논문 심사와 같은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HDR 심사 위원은 5명 이상이고, 박사 학위는 3명 이상이다. HDR는 평점(mention)이 없다. 그 학위를 한 후, 교육부의

대학자문위원회(**Conseil National des Universités, CNU**)에서 실시하는 각 분야별 정교수 유자격자 명단(4년간 유효, **qualification aux fonctions de professeur des universités**)에 올라가는 절차를 성공적으로 통과해야 한다. 그 다음, 매년 2월말경 프랑스 공화국 관보(**Journal Officiel**)에 일시에 게재되는 전국 80개 대학 정교수 및 부교수 공개 모집 공고에 자신의 해당 분야의 자리가 있는 경우, 이에 응모한다. 물론 이 공고에 실린 자리들은 각 대학에서 작성하여 교육부에 올린 것이다.

공고가 난 후 각 대학에서는 지원 서류를 받아, 각 대학에 설치된 분야별 교수 임용 전문가 위원회(**Commission de spécialistes**; 현재는 **Comité de sélection**)를 2회 연다. 이 위원회의 위원은 정교수와 부교수이며, 전체 위원 수의 반이 외부 대학 정-부교수여야 한다. 부교수 임용 심사 때는 정-부교수 전체 회의를 하고, 정교수 임용 심사 때는 부교수들은 나가고, 정교수들만 남아 심사한다. 첫 회의에서는 각 지원자에 대해 위원들이 나누어 검토해 온 2개의 예비 심사 보고서를 들은 후, 3명 정도의 우수 지원자를 제2차 회의에 불러 면접을 한 후, 그중 최우수 후보자부터 순번을 매겨 명단을 작성하여 대학 본부에 올리면, 대학 이사회에서는 대학의 각 전문위원회에서 올린 명단을 종합하여, 가결하여 교육부에 올리고, 교육부는 전국의 대학교에서 올린 제1순위 후보자들을 일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교수에 임명한다. 2001년도에 프랑스 대학 정교수로 임용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인문과학 전체로 보면 50세,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등 소위 말하는 « 회귀 언어 »는 52세이다. 자연 과학 분야는 10세가 낮다.

국립학술연구원(**CNRS**)의 연구부장(**directeur de recherche**)과 사회과학 대학원(**EHESS**)의 학술 부장(**directeur d'études**)도 대학 정교수와 동급이므로 역시 대통령령으로 임명된다.

부교수가 되는 자격 여건은 박사 학위 소지자이며, 정교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부의 부교수 유자격자 명단(**qualification aux fonctions de maître de conférences**)에 등재(登載)되는 과정을 거쳐,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되며, 교육부장관령으로 임명된다. 2001년도에 부교수로 임용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인문 과학 분야 전체로 보면 38세, 동양어 분야는 40세이며, 자연과학 분야는 10세 더 낮다.

대학의 정교수와 부교수는 의무적으로 1년에 192시간 강의를 해야 한다. 그 이상의 강의 시간 분에 대해서는 월급 외에 추가로 강사료를 받는다. 이들이 대학의 주체이며, 모든 의사 결정 기구에 참여한다.

대학의 전임 교수인 정교수와 부교수 외에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고교 정교사(**professeur agrégé**), 중학교 정교사(**professeur certifié**), 전임 강사(**maître de langues, lecteur**), 임시직 강사(**ATER**), 시간 강사(**chargé de cours, vacataire**)다.

고등학교 정교사나 중학교 정교사도 대학에 완전히 소속할 수 있고, 강사로 강의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이 고교나 중학교에서 해야 하는 강의 시간 수 만큼의 강의를 하며, 월급도 고교나 중학교 정교사 월급을 받으며 대학의 주요 의사 결정 기구에 참여할 수 없다.

전임 강사는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가 있으면 되고, 기간이 1년이고, 1년 연장이

가능하다. 동일인(同一人)이 2년 이상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2년 후는 사람을 바꿔야 하는 단점이 있다. 임시직 강사(ATER, *attaché temporaire d'enseignement et de recherche*)는 정-부교수 중 누군가가 타 정부 부처 파견 근무나 무급 휴가 중일 때, 그 기간 동안만, 해당 교수의 월급을 가지고 임시로 고용하는 강사다. 박사 과정의 학생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여야 한다. 시간 강사 (*chargé de cours, vacataire*)는 건강 보험, 등의 문제로, 자신의 본 직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타대학 교수이면 이상적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적당한 사람을 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대학 전임이 아닌 이들의 모집시에도, 전임 교수 선발 때와 같이 임용위원회 (*Comité de sélection*)의 심사를 거친다.

3.2. 1990-1991년도 프랑스 한국학 현황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임명되어 재직하고 있던 프랑스 한국학 교육 및 연구 기관의 정식 교수 및 연구원의 1990-1991학년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도는 해당직 임명 연도)

-파리7대학 (*Université Paris 7*) : 정교수 이옥(1983), 부교수 최승연(1988), 부교수 마르틴 프로스트(1988).

-동양어대학 (*INALCO*) : 정교수 앙드레 파브르(1969).

-리옹3대학 : 부교수 이진명.

-국립학술연구원(*CNRS*) : 연구부장 다니엘 부셰, 연구원 마르크 오랑주, 연구원 알렉상드르 기오모즈.

-고등사회과학대학원 (*EHESS*) : 부교수 정성배.

프랑스 전체에 정교수급 2 명, 부교수급 6 명, 계 8 명이었다.

3.3. 1990년-2005년 사이의 변동

1990년에서 2005년 사이의 프랑스 한국학계의 의미 있는 변동은, 여러 명의 장년(長年) 교수-연구자들이 65세에 달하여 정년 퇴직하게 된 것과, 3 명의 정교수 임용, 여러 명의 부교수 신규 임용이라 할 수 있다.

정년 퇴임자(연대는 퇴임 연도)는 파리7대학의 이옥 (*LI Ogg*, 고대사, 1993), *CNRS*의 다니엘 부셰 (*Daniel BOUCHEZ*, 고전 문학, 1993), 동양어대학의 앙드레 파브르(*André FABRE*, 언어학, 1997), *EHESS*의 정성배-베르트랑(*Bertrand CHUNG*, 정치학, 1998)의 네 명이다. 이들은 모두 정교수였다. 1932년생 앙드레 파브르는 2009년 7월 27일 남불 페르피냥(*Perpignan*)에서 세상을 떠났다.

2000년대 초에 들어 국립학술연구원(*CNRS*)의 마르크 오랑주 (*Marc ORANCE*, 역사학, 2002), 파리7대학의 이병주 (*LEE Byoung-Joo*, 언어학, 2004)가 정년 퇴임했다.

따라서 1991-2005년 사이에 한국학 교수-연구원 6명이 퇴임했다. 이들을 프랑스 한국학 제1세대라 할 수 있다.

3.3.1. 파리7대학교

프랑스에 한국학이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한 이옥(1928-2001)은 안타깝게도 2001년 7월 28일 별세, 8월 3일 파리 시내의 몽파르나스 공동 묘지에 안장되었다. 이옥을 비롯한 이들은 프랑스 한국학 교수-연구진 제1세대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정년 퇴직 후 한동안 한국학 박사 학위 지도 및 논문 심사 위원이 될 수 있는 현직 정교수가 없는, 공백기가 있었다.

박사 학위 지도에 관한 공백은 EHESS에 1995년 9월 1일부로 정성배가 정교수급인 학술 부장이 됨으로써 일시 해소되었으나 정성배는 1998년에 정년 퇴임하고, 그 후임으로, 1998년에 CNRS의 연구부장이 된 알렉상드르 기요모즈(Alexandre Guillemoz, 민속학, 무당 연구)가 EHESS로 옮겨, 1999년 12월 1일부로 대학정교수와 동급인 학술부장(Directeur d'études)에 임명되었다.

3.3.2. 동양어대학교

부교수로 있던 파트릭 모뤼스가 1999년에 파리7대학에서 문학으로 박사 학위 지도 자격 국가 학위(HDR)를 했으나, 정교수가 된 것은 2009년이다.

1969년 이래 한국-일본학부에 속해 왔던 동양어대학교의 한국학과가 이에서 분리되어 2000년 가을 신학년도부터 유라시아학부(Département Eurasie)에 속하게 되었고, 파리의 클시시(Clichy) 지역에 있었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수는 1990년대에 1-4학년에 모두 100여명 내외였으나, 2001-2002년에는 45명으로 감소됐다. 타이어, 캄보디아어, 말레이어-인도네시아어 정도의 수준이었으며, 월남어에는 훨씬 뒤졌다. 일본어나 중국어의 1/15 수준이었다.

교수진은 부교수 심승자 (SHIM Seung-Ja, 언어학, 2001), 김대열 (KIM Dae-yeol, 사상사, 종교학, 2001)이 있었고, 파트릭 모뤼스는 2000년 9월부터 무급 휴직하여 서울에 체류하고 있다가, 2002년 3월에 주한 프랑스 대사관 문정관에 임명되어 근무한 후, 2004년 신학년도부터 학교에 복귀하여 부교수로 강의했다. 이들 외에 전임 강사 3명, 시간 강사 한두 명이 더 있었다.

3.3.3. 리옹3대학교

1988년부터 부교수로 있던 이진명 (한국 근-현대사, 한국어 문법, 인구사, 경제사, 독도 및 동해 명칭 연구)이 2000년 3월 27일 월요일 파리7대학에서 인문 과학 분야 박사 학위 지도 자격 국가 학위인 HDR을 함으로써, 그해 가을부터 파리7대학 동양학부에서 외부 멤버로 한국학 박사 학위를 지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2001년 9월 1일부로 리옹3대학에 정교수(professeur des universités)로 임용되었다. 이진명의 정교수 자리는 학교 당국이 마침 정년 퇴직한 그리스어 정교수 자리를 한국어로 돌려 주어서 가능했다. 이로써 이진명은 1983년에 한국인으로는 이옥이 파리7대학교에 정교수로 임용된 이래 처음으로 인문학(한국학)으로 프랑스의 대학 정교수에 임용(任用)된 것이다.

1990년-2005년 사이에 부교수로 신규 임용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

샤발-최은숙(CHABAL-CHOI Eun-sook, 문학)이 1992년에 르-아브르 대학에 부교수로, 김보나 (KIM Bona, 문학)가 1993년에 보르도3대학에 부교수로 각각

임명되었다. 알랭 델리센(Alain DELISSEN, 현대사-일제시대사)은 1994년에 CNRS의 연구원(대학 부교수급)으로 임명되었는데, 그는 다음해에 EHESS 부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그에 이어, 동양어대학에 파트릭 모뤼스(Patrick MAURUS, 문학, 1995), 파리7대학에 이병주(LEE Byoung-joo, 언어학, 1997), 동양어대학에 심승자(SHIM Seung-ja, 언어학, 2000), 그리고 2001년에 프랑스 극동학교에 연구원으로 엘리자베트 샤바놀(Elisabeth CHABANOL, 고고학, 2001)이, 동양어대학에는 김대열(KIM Dae-yeol, 사상사-종교학, 2001), 라 로셀 대학에 에블린 세렐-리키에 (Evelyne CHEREL-RIQUIER, 현대사, 2002)가 각각 부교수로 임용되었다. 파리7대학에는 2004년 이병주 퇴임 후, 야닉 브뤼네통(Yannick BRUNETON, 고려 불교사)이 부교수에 임용되었다.

2002년 4월에 CNRS의 마르크 오랑주(Marc ORANGE)가 정년 퇴직함으로써 CNRS에는 한국학 전문 연구원이 전무(全無)하게 되었다.

이들 외에 부분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한국학을 하는 사람으로는 카톨릭 대학의 클로드 발레즈(Claude BALAIZE, 지리학), 파리11 대학(낭떼르)대학의 발레리 즐레조(Valerie GELÉZEAU, 지리학, 파리4대학교 및 마르느-라-발레 대학교), CNRS의 나탈리 뤼카(Nathalie LUCA, 종교학), 국립기메(Guimet)동양 박물관에서 한국 유물을 전담하는 주임 자료 보존관(conservateur en chef, 큐레이터)인 피에르 캄봉(Pierre CAMBON) 및 자료 보존관으로 도서실장인 프랑시스 마쿠앵(Francis MACOUIN), 등이 있었고, 프랑스 국립도서관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BNF)에는 주임 자료 보존관 송길자(SONG Kil-ja)가 현대 한국본 장서를 관리하고 있었다. 동양어대학교 도서관에는 시간제 사서가 한국본 도서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외에도 2년 기한부 임시직 전임 강사(ATER, maître de langues, lecteur, répétiteur) 및 시간 강사(vacataire, chargé de cours)가 여러 명 있었다.

3.4. 2005-2013 프랑스 한국학의 확장

프랑스 한국학은 2005년부터 2013년 사이에 학생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프랑스 한국학의 1.5세대라고 할 수 있는 교수진 교체와 교수 자리 신설로 교수진도 강화되었다. 그 사이 65세였던 프랑스 교육 공무원의 정년 연령을 3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68세까지 근무가 가능해 졌다.

3.4.1. 파리7대학교 (Université Paris Diderot-Paris 7) 동양학부 (UFR Langues et Civilisations de l'Asie Orientale) 한국학과 (Section d'Etudes Coréennes)

파리7대학은 2005-2006학년도부터 유럽 학위인 LMD (Licence-Master-Doctorat 또는 3-5-8 학제)를 실시하고 있다. 유럽 공통 학위인 이 학제(學制)는 학사 (Licence) 과정이 3년, 석사 (Master) 과정이 2년, 박사 (Doctorat) 과정이 3년이다. 학점도 ECTS (European Credits Transfer System)라 하며, 매 학기에 30 ECTS이며, 한 학년도에 60 ECTS, 학사(Licence)를 마치려면 180 ECTS를 획득해야 한다. 시험 성적은 매 학기 단위로 종결한다. ECTS는 1989년, 유럽의 대학 간 학생 교환 프로그램인 “에라스무스 (Erasmus)”를 실시하면서 만든 학점 제도다. 이 학점 제도는 프랑스는 물론 유럽 모든 대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유럽 각국의 대학에서는 이를 상호 인정해 준다.

프랑스의 대학 학제 :

-새 학제는 학교에 따라 2003-2004 학년도부터 실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대학 구학제	DEUG		Licence	Maîtrise	DEA	Doctorat		
대학 새학제	Licence (180 crédits*)			Master (120 crédits)		Doctorat (180 crédits)		
동양어대학 구학제	DULCO		Dip.Sup.	DREA	DEA	Doctorat		
	Certificats							
	Dip. bilingue avec majeur-mineur			Diplôme CPEI				

*새 학제는 유럽 학제이며, 동양어 대학교도 현재는 기본적으로 타대학 학제와 동일함. **Crédit**는 유럽 학점 (**crédit européen**)을 의미하며, **ECTS (European Credits Transfer System)**의 약자임. 박사 학위는 형식상 **180** 학점으로 되어 있지만 학점을 따지지 않으며, 인문학에서는 **3년**에 끝내기도 어렵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1년**, 또는 **2년** 정도 연장이 가능하다.

파리7대학교는 **2006년** 여름에는, **1970년**부터 사용된 현재의 파리 5구 주시유(Jussieu) 캠퍼스를 떠나 **13구**의 그랑-물랭(Grands-Moulins) 지역으로 이전하여, **2006-2007** 신학년도부터는 새 캠퍼스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1970년**도부터 사용해 오던 주시유 캠퍼스 건물은 **1970년대** 초에 지으면서 석면(石綿)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한 동안 석면이 들어간 부분을 데이프로 가려 놓고 지내다가, 석면 제거 작업에 들어가면서 파리7대학은 옛 밀가루 공장 (Grands-Moulins)을 개조하는 한편 새로 건물을 지어 단장한, 파리 남쪽 **13구**, 센느 강변, 프랑스국립도서관 신관인 미테랑관 바로 아래, 마르그리트 뒤라스가(街) (rue Marguerite Duras)와 토마스 만(rue Thomas Mann)가(街)로 이전(移轉)했다.

파리7대학 동양학부 한국학과에는 창설 당시부터 한국어-문학-문화-인문학 전공 국가 학위(LLCE)인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이 있고, 그 외에 **2006년**에 한국어 및 토픽(TOPIK,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 대학 학위 (DU de langue coréenne et préparation au TOPIK)도 신설되었다. 대학 학위 한국어 강의는 일반인들도 수강이 가능하므로 오후 늦은 시간에 있다.

파리7대학교 한국학과는 최근에 교수 요원이 **1명** 확충되었다. **2010년**에는 마리-오랑주 리베-라상(Marie-Orange RIVE-LASAN), **2012년**에는 김진옥(KIM Jin-ok), **2013년**에는 플로랑스 갈미슈 (Florence GALMICHE)가 각각 부교수로 임용되었고, 부교수로 있던 마르틴 프로스트(Martine PROST)는 **2011년**에 정년 퇴임했고, 부교수 최승언(CHOI Seung-un)은 **2013년 9월 1일**부로 퇴임했다. 그러나 최승언 교수는 불행히도 암으로 **2013년 10월 13일** 별세했다. 따라서 최근에 **2명**이 퇴임하고, **3명**이 새로 임용되었으므로, 한 자리가 신설된 셈이다.

2013년 10월 현재 파리7대학교 동양학부 한국학과 교수진은 야닉 브뤼네통 (Yannick BRUNETON, HDR, 고려 불교), 마리-오랑주 리베-라상 (Marie-Orange RIVE-LASAN, 현대사), 김진옥 (KIM Jin-ok, 언어학), 플로랑스 갈미슈 (Florence GALMICHE, 불교) 네 명이고, 모두 부교수(maître de conférences)다. 이들 외에 전임 강사 (maître de langues) **5명**과 시간 강사 여러 명 더 있다.

1970년대부터 1993년까지 파리7대학에서 이옥 교수 지도하에 한국학으로 30여 명이 박사 학위를 했다. 프랑스 전국의 각 대학에서 직접, 간접으로 한국과 관련이 있는 주제로 심사를 통과하는 박사 학위 논문은 매년 20여 편 정도 되었다. 2001년 12월에는 신항수가 처음으로 파리7대학과 한국의 고려대학의 공동 지도를 받아 박사 논문을 마쳤다. 1990년대에 파리7대학과 고등사회과학 대학원에서 한국학으로 박사 학위를 준비 중인 학생은 10여 명이었다.

파리7대학 동양학부의 한국학과 일본학 박사 과정은 현재 **Ecole doctorale 131**에 속하는데, ED 131에서 2000년부터 리옹3대학 정교수 이진명(LI Jin-Mieung)이 외부 지도 교수로 한국학 박사 논문을 지도해 오고 있다. 이진명이 2012년 9월 1일부로 정년 퇴임하면서 리옹3대학 명예 교수가 됨으로써 자신의 지도하에 있던 파리7대학 학생 중 논문을 마치지 못한 학생을 5년간 더 지도할 수 있게 되었다. 2000년부터 2013년 사이에 이진명의 지도하에 파리7대학에서 한국학으로 박사 논문을 마친 사람은 모두 9명이다. 2013년 6월 부교수 야닉 브뤼네통(Yannick BRUNETON)이 EPHE (Ecole Pratique des Hautes Etudes, 종교학 대학원)에서 고려 불교 연구로 HDR 학위를 했다. 따라서 한국학 박사 논문을 지도할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정교수가 될 수 있는 자격도 갖추었다.

한국학 전공 1학년 등록생 수는 1990-2000년 사이는 매년 10명에서 15명 사이로 중국학이나 일본학의 1/6 정도 였으며, 월남학의 1/2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5년경부터 한국의 경제 성장과 민주화, IT 첨단 기술, 한국 문화와 한류 바람을 타고 프랑스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파리7 대학교에도 한국학을 전공하겠다는 학생이 매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여 2011-2012년에는 1학년에 148 명이 몰려와, 거의 중국학이나 일본학 수준에 도달했고, 월남학의 9배 가까이 되었다. 갑작스럽게 쇠도하는 학생들을 다 수용할 능력이 없어서 2012-2013, 2013-2014 학년도 이후에는 100명 선에서 자르고 더 받지 않는다. 타 학과 학생들도 수강이 가능한 한국 현대사 강의 같은 데는 등록생이 200여 명 되어 대강당에서 마이크로 강의를 할 정도다.

그러나 언어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어느 과목을 전공하든, 많은 노력이 필요하므로, 학업이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학생들이 첫해에 많이 포기하므로, 2학년이 되면 학생 수가 2/3에서 1/2 정도로 줄어 든다. 이는 프랑스 대학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2011-2012 학년도 한국어과 등록생 수는 1학년 148 명, 2학년 68 명, 3학년 17 명이었다.

1990-2012년 이래 파리7대학 동양학부 (UFR Langues et Civilisations de l'Asie Orientale) Licence (학사) 1학년 등록생 수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중국학과	한국학과	일본학과	월남학과
1990-1995 연평균	73	12	85	23
1995-1998 연평균	100	15	101	31
2001-2002	121	7	169	36
2005-2010 연평균	174	53	177	26
2011-2012	153	148	118	16

3.4.2. 동양어대학교 (INALCO, Institut National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 유라시아 학부 (Département Eurasie) 한국학과 (Unité de Langue et Civilisation Coréennes)

2013년 현재, 이 학교에서는 영어, 불어, 등 유럽의 큰 언어를 제외한, 전 세계의 언어, 즉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를 포함하여, 알바니아어로부터 요루바 (Yoruba)어까지, 90개 언어를 가르치고 있다. 이들 언어들은 16개 학부를 구성한다.

이 학교는 1985년이래 파리 16구의 도핀느(Dauphine)와 18구의 클리시(Clichy)에 분산되어 있다가, 2011년 가을 신학년도부터 파리 13구 그랑 몰랭 가(街) 65번지 (65, rue des Grands-Moulins)의 신축 건물로 이전했다. 이곳은 프랑스국립도서관 신관 및 파리7대학과 멀지 않다.

이 학교에는 동양어문도서관 (BULAC, Bibliothèque Universitaire des Langues et Civilisations)이 있다. 이 도서관은 구 동양어대학 도서관에다 다른 여러 도서관에서 온 도서를 추가하여 구성된 것이다.

동양어대학교도 교수진이 1자리 보강되었다. 2009년 9월 1일부로 파트릭 모뤼스(Patrick MAURUS)가 정교수에 임용되었고, 2010년에 심승자(Shim Seung-ja)가 정년 퇴임하고, 그 자리에 정은진(JEONG Eun-jin, 문학)이 임용되었고, 2012년에는 김희연(KIM Hui-yeon, 종교-사회학)이 부교수(신설)에 임용되었다. 여기에 2001년에 부교수로 임용된 김대열(KIM Dae-yeol, 사상사, 종교학)을 포함하면, 교수진은 정교수 1명, 부교수 3명이다. 그 밖에 전임 강사 2명, 시간 강사 8명이 더 있다.

이 학교는 전통적인 DULCO라는 학위를 하고 있다가, 1995-1996 학년도부터 프랑스 대학의 문과 정규 학위인 LLCE (3년)를 실시하고 있다. 타대학과 마찬가지로 유럽 학제인 LMD도 실시하고 있다.

1985-1986년에서 2001-2002년 사이의 한국어과 1학년 학생 수는 40-50 명 내외였던 것이 2005-2006년에 150 명, 그후 약간 감소했다가, 2009-2010년에는 160명, 2010-2011년 190명, 2011-2012년에는 250 명으로 급속히 증가했다. 그러나 2학년이 되면 학생 수가 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이 이 학교도 예외가 아니다. 예를 들면 2010-2011년에 1학년이었던 190명의 학생이 2011-2012년에 2학년이 되면서 100여 명으로 줄었다. 2학년에서 3학년이 되면서는 많이 줄지 않는다.

3.4.3. EHESS

2006년 9월 1일부로 EHESS의 알렉상드르 기오모즈가 정년 퇴임하고, 알랭 델리센(Alain DELISSEN)이 그 후임으로 한국연구소 UMR 8133 소장이 되었고, 2007년에 정교수에 준하는 학술 주임(directeur d'études)이 되었다. 2007년에는 또 마르느 대학 지리학 부교수로 있던 발레리 즐레조(Valerie GELÉZEAU, 지리학)가 EHESS로 전임하였다. 파리7대학 마르틴 프로스트가 2012년 정년 퇴임하자, 그의 콜레주 드 프랑스 한국학 연구소 소장직을 알랭 델리센이 맡게 되었다. 따라서 즐레조가 EHESS 한국연구센터 (Centre de recherches sur la Corée) 소장이 되었으며, 그는 2012년에 HDR 학위를 했다. EHESS에는 또 카레-나은주(CARRE-NA Eun-joo)가 2007년에 정보 담당 사무직에 임명되었다.

2013년 현재 EHESS의 전임 교수는 정교수 알랭 델리센(Alain DELISSEN, 근현대사,

일제 시대사)과 부교수(MCF HDR) 발레리 즐레조(Valérie GELEZEAU, 지리학) 두 사람이다. 발레리 즐레조가 2008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연구센터 소장을 역임했고, 2013년 10월 1일부터는 CNRS 연구원 이자벨 산초(조선 시대 유교)가 소장직을 맡고 있다.

3.4.4. 리옹3대학 (Université Jean Moulin – Lyon 3)

리옹3대학교는 론느 강변, 19세기 중엽부터 사용해 오던 구 건물에서, 옛날 담배 공장(Manufacture des Tabacs)을 10여 년에 걸쳐 수리하고, 다른 건물도 신축하여, 1999년에 이곳 리옹 8구 알베르 토마 가(街) 6 번지 (6, cours Albert Thomas, 69008 Lyon)로 이전하였다.

이 대학교에는 정교수 이진명이 2011년에 만 65세가 되어 정년 퇴임하기로 마음먹고, 2010년 6월말에 학교에 자신의 정교수 자리를 타학과에 주고, 타학과의 부교수 자리를 한국어 교육에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학교 당국은 이진명의 정교수 자리를 영어과에 주고, 한국어에는 전임 강사를 주는 것으로 결정했다. 전임 강사는 매 2년마다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은 안정성과 계속성이 없어 지게 된다. 따라서, 이 사실을 알게된 이진명은 그 자리에서 정년을 3년 연장하여 다음 기회를 보기로 했다. 그래서 학교의 계획은 백지화 되었다. 이진명을 2011년 6월말경 동일한 요청을 또 했다. 방학이 지나고 개학하여 알아보니 이번에는 이진명의 정교수 자리를 영어과에 주고, 영어과의 부교수 자리를 한국어로 돌려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한국어 부교수 자리에 적격자를 공모(公募)하기로 하고, 이진명은 안심하고 퇴임하게 되었다.

그는 2012년 9월 1일부로 정년 퇴임하면서, 명예 교수 (professeur émérite)가 되어, 파리7대학에서 그의 지도하에 박사 학위를 준비 중인 학생들의 논문 지도를 5년간 더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임으로 이민숙 (LE-WANG Minsook, 현대 문학)이 부교수에 임용되었다. 교수진으로는 책임자 이민숙 외에 시간 강사가 1명 더 있다.

리옹3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한국어(LV3)를 선택하면, 한국어는 자기들 전공 학위 내의 필수 과목 중 한 과목이 되므로 반드시 학점을 따야 한다. 한국어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일본어 학사(LLCE, Langue, littérature et civilisation étrangères – japonais) 과정 학생들이 90% 이상이고 중국어 학사 및 LEA를 하는 학생도 10여 명 된다. 일반인은 대학의 평생교육원에 등록하며, 이들은 한국어 대학 학위 (DU, Diplôme universitaire)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들의 수는 4-5명으로 극히 적다. 강의는 이 두 부류의 수강생을 한데 모아 하며, 각 학년 주(週) 1.5 시간, 2회, 학기당 10주(週), 연(年) 20주, 즉 연(年) 60 시간이다. 매 학기 외국어 대학의 20여 개 LV3 언어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강당에 모아 실시하는 시험 기간이 매학기 2주이다.

리옹3대학교 외국어대학 1학년 한국어 수강생 수를 보면, 1990년에서 2003년 사이는 매년 10명에서 15명 사이였다. 그러던 것이 2003-2004년에 26명, 2005-2006년 60명, 2010-2011년 87명, 2011-2012년 106명, 2012-2013년 100명이었고, 2013-2014년에는 1학년 95명, 2학년 48명, 3학년 20명이다. 따라서 2004-2005년까지 1반이었던 1학년 강의가 그후부터는 2반, 그 다음에 3반으로 늘었다. 2학년은 2반, 3학년은 1반이다.

1학년 학생수가 2004-2005년 이전에서 2013-2014년 사이는 약 다섯 배,

2005-2006년에서 2013-2014년 사이에는 약 2,5배 증가한 셈이다. 이런 한국어 수강 학생 수의 급속(急速)한 증가 비율은 다른 대학교도 비슷하다.

론-알프(Rhone-Aples) 지역 의회의 장학금을 받아, 일본어와 중국어를 전공하는 학생의 반 정도가 일본이나 중국에 가서 자신의 전공 학사 (Licence) 3학년 과정을 이수하고 돌아온다. 이들 중 한국어를 선택한 학생은 한국의 성균관대학교 1명, 부산의 동의대학교에 1명이 가서 자신의 전공 과목을 이수하고 돌아와 학사를 마치거나, 석사 (Master) 과정에 올라갈 수 있다.

2013년 11월 초에 리옹3대학 전체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2014-2015 학년도에 국가 학위인 « 실용 영어-한국어 전공 학사 학위 » (LEA anglais-coréen : LEA, Licence langues étrangères appliquées)를 개설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현존하는 한국어 필수 선택 과목 LV3 /DU(대학 학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거기에 추가해서 신설되는 학사 학위이다. 따라서 교수진도 강화될 전망이다.

리옹3대학 한국어 제3외국어 수강 학생 + 일반인 (일반인은 불과 4-5명으로 학생과 한데 모아 강의).

	I 학년	II 학년	III 학년	계
2013-2014	95	48	20	163
2012-2013	100	55	14	169
2011-2012	106	37	11	154
2010-2011	87	33	10	130
2009-2010	37	18	4	59
2008-2009	48	24	12	84
2007-2008	47	29	7	83
2006-2007	60	20	6	86
2005-2006	44	12	7	63
2004-2005	20	14	8	42

3.4.5. 보르도3대학 (Université Michel de Montaigne – Bordeaux 3) :

부교수 김보나는 2008년에 향가(鄕歌) 연구로 HDR 학위를 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한국어 대학 학위 (DU, diplôme universitaire), 보르도3대학 학위 (CLUB - certificat de langue de l'Université Bordeaux 3 – 12 개 언어), 인터넷에 의한 통신 교육 대학 학위 과정(DU-FAD, formation à distance)이 신설되면서, 강의 수가 늘어나 책임자 김보나(KIM Bona, MCF HDR, 문학) 외에 전임 강사 김준연 (KIM Jun-youn), 시간 강사 강미란(KANG Miran)도 강의를 맡고 있다. 보르도3대학에서 하는 이들 한국어 학위는 모두 대학 학위이며, 한국어 강의를 학사나 석사 같은 국가 학위 중의 필수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

다른 지방 대학교들도 리옹3대학교나 보르도3대학교처럼 2005년 이후에 현저하게 학생 수가 증가했다. 보르도 3대학도 1학년 한국어 수강생 수가 2006-2010년 사이는 매년 45명 정도였으나, 2010-2011년에 71명, 2011-2012년에는 110명으로 급속히 증가하여, 2012-2013년에 110명, 2013-2014년에도 164 명에 달한다.

2013-2014년 보르도3대학교 한국어 강의 수강생 수 :

	1학년	2학년	3학년
DU	23	8	7
DU-FAD	16	-	-
Club	70	40	
Total	109	55	

3.4.6. 라 로셸대학교(Université de La Rochelle) :

영어-한국어 2개 언어 전공 (LEA-Anglais-Coréen) 정규 과정이 있고, 교수진은 부교수 에블린 세렐-리키에 (Evelyne CHEREL-RIQUIER, 현대사)과 2007년에 임용된 부교수 권용해(KWON Yong-hae, 언어학) 외에 전임 강사 1명이 더 있다. 한국어 전 과정의 학생 총 수는 150여 명에 달한다.

3.4.7. 르 아브르 대학교 (Université du Havre)

국제 사업 대학 (Faculté des Affaires Internationales)은 르 아브르 대학교의 5개 단과 대학 중의 하나이다. 이 대학에 동양학부 (ILCO, Institut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가 속해 있고, ILCO에서는 6개 언어, 즉 아랍어, 중국어,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러시아를 가르친다. 이들 언어는 대학 학위로 이수할 수도 있지만, 또 이 대학의 학사 및 학사 학위의 필수 선택 과목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교수진은 부교수 최은숙(CHABAL-CHOI Eun-sook, 현대 문학)이 있고, 강사 2명 - 조혜영과 임준서 - 이 더 있다. 2013-2014 학년도 전과정의 한국어 수강생 수는 67명이다.

르 아브르 대학교 ILCO 전 과정 (1-5학년) - 언어 강의 등록생 총 수 - 괄호 속은 그중 1학년 수강생 수 : 아랍어 144 (74), 한국어 67 (40), 러시아어 58 (30), 일본어 110 (54), 중국어 117 (54), 인도네시아어 33 (26).

3.4.8. 엑스-앙-프로방스 대학교 (Université d'Aix-en-Provence)

남불의 엑스-앙-프로방스 대학교에 2011년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그해 9월 1일부로 김혜경(KIM-CRESENZO Hye-gyeong, 언어학)이 부교수에 임용되었다.

이 밖에 파리에서 서쪽으로 200 km 거리의 루앙 대학(Université de Rouen)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2001년부터 한국어 강의를 실시해 오다가 2012년 9월 신학기에 폐강(閉講)하였다.

3.4.9. 국립학술연구원(CNRS)

동 연구원에는 마르크 오랑주 퇴임 이후, 한국 전문가가 없었는데 2009년에 이자벨 산초(Isabelle SANCHO, 조선 시대 유교)가 부교수급인 연구원에 임용되었다. 한편 이자벨 산초는 2013년 10월 1일부터 발레리 즐레조 (Valérie GELÉZEAU) 후임으로 고등사회과학대학원(EHESS)의 한국연구센터 (Centre de recherche sur la Corée) 소장이 되었다.

3.4.10. 프랑스크동학교(EFEO)에는 변동 없이 엘리자베트 샤바늘(Elisabeth

CHABANOL) 1명이 부교수로 있다.

따라서 2013년 10월 현재 프랑스에서 한국학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현직 교수는 정교수(PU) 2명 (Patrick MAURUS, Alain DELISSEN), 박사 논문 지도 자격 국가 학위(HDR, 이 자격이 있어야 정교수도 될 수 있음)를 소지(所持)한 부교수(MCF HDR) 3명 (KIM Bona, Valérie GELÉZEAU, Yannick BRUNETON), 부교수(MCF) (Marie-Orange RIVE-LASAN, KIM Jin-ok, Florence GALMICHE, KIM Dae-yeol, JEONG Eun-jin, KIM Hui-yeon, LE-WANG Minsook, CHOI Eun-sook, Evelyne CHEREL-RIQUIER, KWON Yong-hae, Elisabeth CHABANOL, Isabelle SANCHO, KIM Hye-gyeong) 13명, 계 18명이다. 2005년에 13명이었던데 비해 8년 사이에 5명이 증가하여 2013년에 18명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들 외에 리옹3대학교 명예교수(professeur émérite) 이진명(LI Jin-Mieung)이 파리7대학에서 박사 논문 지도를 계속하고 있다.

프랑스의 대학과 연구 기관은 모두 국립이고, 모든 대학이 평준하며, 정-부교수는 국가 교육 공무원이다.

최근의 이 같은 한국학 교수직 증가는 경제 사정이 어려워,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 프랑스 정부로서는 획기적인 일이며, 다른 작은 언어들에 비해 부러워할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이 같은 전임 교수 수의 괄목할 만한 증가는 학생 수의 팽창에 따른 것이지만, 한국학은 일본학이나 중국학에 비해 절대적으로 전임 교수 자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3.4.11. 그랑 제콜 (Grandes Ecoles)

대학 수준의 전문 학교들을 그랑 제콜(Grandes Ecoles, 일종의 전문 대학교)이라 부르는데, 이 학교들은 정원제여서, 학생들이 시험을 거쳐 입학하며,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 들어 한국어 강의가 그랑 제콜로도 확산되고 있다.

3.4.11.1. 파리정치학교 (Sciences Po de Paris)

이 학교는 한국학 교수직 신설을 목표로, 한국 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지원을 받아 2005년부터 5년간 한국학 강좌를 개설하여, 1년 임기의 교수가 파견되어 와서 강의를 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이 끝났으나 교수직 신설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 반면에 이 학교에 2006년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강사 조혜영 (TCHO Hye-young)이 강의를 하고 있다.

3.4.11.2. 르-아브르의 정치학교 (Sciences-Po du Havre)

여기에도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최은숙(CHOI Eun-sook)과 다른 강사들이 강의를 하고 있다.

3.4.11.3. 파리 율름 가(街) 고등사범학교 (Ecole Normale Supérieure d'Ulm, Paris)

이 학교는 프랑스 최고의 수재들이 들어가는, 대학 수준의 명문 전문 학교인데, 이 학교에 2012년 10월 17일부터 한국어 강의를 시작되었다. 강사는 노미숙(NO

Misug)이고, 첫째 수강생은 7명이었다.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외국어는 19개인데, 그중 9개 언어는 상설 정규 강의이고, 나머지 10개 언어는 매 학기 수강 희망 학생 수에 따라 강의를 열린다. 2013년에도 초급반 등록 학생이 13명이어서, 강의를 열려, 노미숙과 파리7대학 전임 강사 안정민이 한 주씩 교대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노미숙이 콜레주 드 프랑스의 한국 연구소에 2011년에 정식으로 한국 도서 담당 사서로 임명되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1979년에 설립된 파리의 한국문화원에서도 1981년부터 무료 한국어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초급과 중급 두 반인데, 강의는 각 반 주 1시간 2회 실시해 왔다. 최근에는 초급반에 500여 명이 몰려와, 이를 수용할 수 없어서 선착순으로 200 명만 받아 수업을 하다가, 2013년 가을부터는 400여 명의 수강자를 초급 7개 그룹(반), 중급 4개 그룹, 고급 3개 그룹, 영화 한국어의 1개 그룹으로 편성하여 강의를 하고 있다.

세종학당도 2012년에 문을 열어 약간 액의 등록금을 받고 강의를 하고 있다. 수강생 수는 70여 명에 이르고 책임자는 임준서(LIM Jun-seo)다.

3.4.12. 콜레주 드 프랑스 소속 한국학연구소 (Institut d'Etudes Coréennes du Collège de France)

2002년 오랑주가 정년 퇴임한 후, 파리7대학 부교수 마르틴 프로스트(Martine PROST)가 소장을 맡고 있다가, 그의 퇴임후 2012년에 EHESS 소속 정교수 알랭 델리센(Alain DELISSEN)이 소장을 맡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는 1979년부터 « 한국학연구소 논문집 - 단행본 » (Mémoires du Centre d'Etudes Coréennes) 및 « 한국연구노트 » (Cahier d'Etudes Coréennes) 두 시리즈의 학술 서적을 간행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두 시리즈에 각 10 종(種)과 8 종의 단행본을 간행했다.

3.4.13. 한국 연구 연계망(連繫網) (Réseau d'études sur la Corée) « 불어권 한국 연구 »

파리 컨설시움(Paris Consortium)은 파리7대학교, 동양어대학교, 고등사회과학 대학원이 축이 되어 구축한 연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 한국 연구 연계망(連繫網) (Réseau d'études sur la Corée) » (불어권 한국 연구)이 2012년 1월초에 파리7대학 한국학과 내에 설치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으로 이룩된 것으로 프랑스의 한국학 연구자들을 연계하고 연구 업적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계망은 프랑스학술연구원(CNRS)의 인문-사회과학 정보 및 홍보 플랫폼인 Hypotheses.org에 연계되어 있다. (<http://parisconsortium.hypotheses.org>).

파리 컨설시움 사이트는 프랑스의 한국학 행사, 연구 그룹, 교육 기관, 출판물, 한국 연구망, 등을 소개-홍보하고 있다.

파리 컨설시움을 통하거나 또는 직접 « 한국 연구 연계망 » (Réseau d'études sur la Corée) (<http://www.reseau-etudes-coree.univ-paris-diderot.fr>)에 접속할 수 있는데, 이 연계망에는 현재, 방대한 모리스 쿠랑의 « 한국 서지 » 및 «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중국, 한국, 일본 도서 목록 », 샤를르 달레의 « 한국천주교회사 » 등 6종의 저서와 박사

논문 10편, 한국에 관한 연구 논문 120여편이 디지털화되어 있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다니엘 부세의 한국어 논문 5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어이다. 일종의 프랑스 한국학 전자 도서관인 셈이다. 물론 여기에는 저작권에 묶여 있는 논문과 저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3.4.14. 한국 및 외국 학계와의 교류

프랑스의 한국학 관련 대학과 학술 연구 기관은 한국의 정부-민간 학술 기관들과도 활발한 교류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학술진흥재단 (Korea Research Foundation), 그리고 1990년대 중반부터는 국제교류재단 (Korea Foundation), 한국학중앙연구원 (구 정신문화연구원)이 프랑스 대학과 연구 기관에 교육, 연구 활동, 학술 회의 조직, 출판, 등을 위하여 재정 지원을 해 주기도 한다.

한국의 교육부와 프랑스 교육부는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프랑스 고등학교의 한국어 강의와 한국 문화 아틀리에를 재정 지원하며, 그 외에 문화부, 국사편찬위원회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uion) 등에서는 도서 기증, 등의 지원을 해 주고 있다. 한국 문학에 관한 발표회가 있었을 때 문예진흥원의 후원도 있었다. 또, 프랑스의 학자들을 한국에서 열리는 학술 대회에 초청하거나, 한국에서의 현지 연구에 편의도 제공한다.

반면 프랑스의 대학교나 학술 연구 기관들은, 한국의 학자들은 물론 동-서부 유럽의 한국학 학자들을 파리에서 개최되는 학술 발표회나 심포지엄 등에 초청하거나, 연구에 편의를 제공하며, 강연이나 강의를 의뢰하는 등 학자와 학문의 교류를 도모한다. 한국학 학자들은 자신의 강의와 연구 활동 외에, 현지에 있는 한국 관계 자료-문헌 조사 활동 등을 통하여 한국 연구에 이바지하며, 문학 작품의 불어 번역에도 참여하여 한국 문학 소개에도 기여하고 있다.

3.5. 프랑스 고등학교의 한국어 정규 과목 채택 및 한국 문화 아틀리에 (특활 特活)

최근 들어 가장 획기적이고 새로운 변화는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전과가 프랑스의 중고등학교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는 프랑스 중고교에 한국어 교육은 물론, 한국 문화에 관한 활동이 전무하다는 현실을 인지(認知)하고, 2008년 주프랑스한국교육원 김차진 원장과 이부런 교육 자문이 협력하여 루앙의 까미으-생상스 중고등학교(Lycée et Collège Camille St-Saëns)에서 한국 언어 문화 아틀리에를 시범 실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3.5.1. AFELACC (한불언어문화교류협회) 창설과 프랑스 중고교의 한국 문화 아틀리에

이런 활동은 프랑스 국내에서 한국 교육부가 할 수 없는 일이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프랑스 법률에 따른 민간 단체(NGO)인 한불언어문화교류협회 (AFELACC, Association Française des Enseignants de Langue et Culture Coréennes)를 조직했다. 이 협회는 2009년 6월 13일 파리의 한인회 사무실에서 창립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단체는 2009년 7월 16일 파리 경시청에 민간 단체로 등록되었으며, 2009년 8월 1일부 프랑스 공화국 관보 - 민간 단체편에 게재되었다. 창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회장 이진명 리옹3대학 명예 교수 (당시 정교수), 부회장 김보나 보르도3대학 부교수, 사무총장

이부련(Bouriane LEE) 파리8대학교 연구 조교다. 이 협회는 파리 (Paris), 보르도 (Bordeaux), 루앙 (Rouen), 오를레앙 (Orléans), 낭트 (Nantes)의 5개 도시에 지부를 두고 있다. 이 협회의 조직에는 당시의 주불 한국 교육원장 김차진과 이부련의 노력이 컸다. 김차진의 후임인 최정례도 AFELACC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었다. 2013년 9월 1일부로 최정례 (CHOI Jung-Rye)가 한국으로 복귀하고, 그 후임으로 2013년 9월 1일부로 이부련이 주불 교육원장에 임명되었다. 이부련은 한국 교육부의 공무원이 아닌 현직인으로서 최초로 교육원장에 임명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현옥(LEE Hyun-Ok)이 AFELACC 사무 총장을 맡고 있다.

2009년 9월 신학년도부터, AFELACC은 한국 정부와 프랑스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파리, 루앙, 보르도, 오를레앙, 솔레의 20여 개 중고등학교의 학생 약 3천 여명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 아틀리에를 실시해 오고 있다. 아틀리에 실행을 위한 해당 학교와의 교섭, 참여하는 인원의 선발, 제정 지원을 AFELACC이 담당한다. 참여 강사들의 강사료의 반은 학교가, 나머지 반은 AFELACC이 확보한 예산에서 지출된다.

이들 아틀리에에는 정규 수업 내의 역사, 지리, 언어, 음악, 미술, 체육 시간의 일부를 할애 받아 담당 교사의 감독 아래 한국의 경제, 역사, 지리, 예술, 사물놀이, 서예, 한국화, 만화, 태권도 등을 강의하거나,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게 하는 활동이다.

아틀리에를 하는 학교에 기회가 있으면 다도(茶道)도 시연하고, 한국 경제 특강 같은 것도 실시하며, 한국관광공사와 한국 식당 조리사들의 도움을 받아 학교 구내 식당에서 한식을 제공하도록 하여 한식의 세계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아틀리에를 통하여,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고등학교에 한국어가 정식 교과 과목으로 채택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이 성과가 있어서 2011년 신학년도부터 3개 학교에서 한국어를 정식 교과 과목으로 채택했다.

3.5.2. 고등학교의 한국어 교육 및 한국어 교재 개발

2011년 4월 7일부 장-루이 냄브리니 (Jean-Louis NEMBRINI) 보르도 교육청장령으로 인가(認可)되어, 2011년 9월에 보르도 프랑소아-마장디 고등학교 (Lycée François Magendie, 교장 장-폴 리샤르 Jean-Paul RICHARD)에 한국어 과목이 제3외국어 (LV3) 교과로 정식으로 개설되었다. 강사는 강미란(KANG Miran)이고, 한국어 첫수업은 9월 7일 실시했다. 2013-2014년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있으면, 학생은 모두 프랑스인으로 1학년에 24명, 2학년에 16명, 3학년에 16명이고, 강의는 각 학년 주 3시간이다.

그에 뒤이어 파리 교육청도 파리의 명문 빅토르-뒤리 고등학교(Lycée Victor Duruy, 당시 교장 자크 프리종 Jacques FRIZON)에 제3외국어(LV3) 한국어 과목 개설을 인가했다. 이 학교의 한국어 강의는 학교간 연합 강좌(LIE, langue inter-établissement) 형식으로, 파리 및 외곽의 30여 개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 한데 모아 하는 강의이다. 강사는 임정원(LIM Jungwon), 조혜영(TCHO Hye-Young), 정남희(JEONG Nam-Hui)이다. 수강생 수는 1-3학년 4개 반에 모두 125명이고, 그중 프랑스인 학생은 67명이다. 강의는 각 학년 주 3시간이다.

앞의 두 고등학교에 이어 2012년에는 루앙(Rouen)의 까미외-생상스(Lycée Camille

Saint-Saëns, 교장 도미니크 드젝스 **Dominique DESAIX**) 고등학교에서도 제3외국어(LV3) 한국어 강의가 개설되었다. 강사는 박재원(PARK Jae-won)이다. 수강생 수는 1학년 24 명, 2학년 16 명이고, 주3시간 강의한다.

이들 3개 고등학교에서 2013-2014 학년도에 제3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한 학생 총 수는 221명, 그중 163명은 부모 양쪽이 프랑스인인 학생들로, 한국어 시작 전에는 한국 문화나 한국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던 학생들이다. 나머지 58 명의 학생은 부모 중 한쪽 또는 양쪽이 한국인인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다.

고교의 한국어 강의 개설 및 고교 졸업 자격 국가 고사 (Bac), 제1선택 과목, LV3 한국어 시험 응시자의 증가 추세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과서 개발이 시급한 과제가 됨에 따라 2010년 9월부터 최은숙, 김보나, 이진명을 중심으로 교재 개발팀(10인)을 구성하여 교재 개발에 착수하여, 2013년 10월에 불어권 최초의 본격적인 한국어 교재 “*Apprenons le coreen ! 한국어를 배우시다!*”의 제1권(본교재 229 쪽 + 음성 cd + 연습장 127 쪽)이 개발되어 권위있는 보르도 대학 출판부 (Presses Universitaires de Bordeaux, 1983년에 설립)에 의해 출판되었다. 제2권은 2014년에 출판될 예정이다. 이 교재는 불어권의 고교생뿐만 아니라, 대학생,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다. 이 교재는 2013년 10월 24일부터 프랑스 및 불어권 국가들의 모든 일반 서점과 언어 전문 서점에서 일제히 판매되기 시작했다.

고등학교에 한국어 강의가 개설됨으로서, 한국과 프랑스 간에 고교생들의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양국의 고교 간에 자매 결연이 되어 양국에서 학생들의 홈스테이(가정집 숙식)가 실시되고 있고, 2013년 10월 13일-24일 간에는 주불한국교육원, 한불언어문화교류협회 및 한국 관광공사의 주선으로 보르도 마장디 고교생 24명이 교감 선생과 한국어 강사 강미란의 인솔(引率)하에 열흘 간의 꿈 같은 한국 수학 여행을 다녀왔다.

위의 세 고등학교의 2013-2014년도 한국어 수강 학생 수는 다음 표와 같다.

Classe	고1학년 (Seconde)	고2학년 (Première)	고3학년 (Terminale)
	FF / FC	FF / FC	FF / FC
파리, 뒤뤼(Duruy) 고교	22 / 14	25 / 17	20 / 27
보르도, 마장디(Magendie) 고교	24 / -	16 / -	16 / -
루앙, 생상스(Saint-Saëns) 고교	24 / -	16 / -	-
소계	70 / 14	57 / 17	36 / 27
계	84	74	63

*FF는 부모 양쪽이 프랑스인(人)인 프랑스인 학생으로,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한국어를 주 3시간, 2년 반 배운 후 Bac 제3외국어 한국어 시험을 치르게 되는 학생들.

FC는 앞의 FF 가정 이외의 모든 가정의 자녀들, 즉 다문화 가정 자녀들로, 가정에서 한국 문화를 접하고, 한국어를 사용하거나, 수요 한글 학교를 다녔거나, 방학 때, 등 한국에서 지낼 기회가 있는 학생들.

2014년 3월에 실시될 Bac 시험에 처음으로, 한국어를 배운 프랑스인 졸업 예정자 36명, 다문화 가정 자녀 27명, 외에 여러 명의 자유 지원자를 포함하여, 70여 명의 고교 졸업생들이, Bac 제1선택 과목으로 제3외국어 한국어 시험을 치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 전망

프랑스의 한국어-문화 교육과 한국학 연구는 1956년 아그노엘과 이옥이 소르본느 대학에서 시작하여, 1959년부터는 동양어대학교, 1970년부터는 파리7대학교, 1970년대부터는 국립학술연구원(CNRS), 1983년부터는 지방의 리옹3대학교, 1986년부터는 보르도3대학교, 1987년부터 르 아브르 대학교, 1989년부터는 사회과학 대학원 (EHESS), 2000년대에는 라 로셀 대학교 (2002)와 엑스-앙-프로방스 대학교 (2011), 몇 개의 그랑제콜, 그리고 2011년부터는 3개의 고등학교에까지 확장되었다.

전임 교수-연구원 (정-부교수)의 수도 1988년 이전의 5 명에서 현재의 18 명으로 늘어났다. 60 년 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학생 수도 대단히 많이 증가하여 튼튼한 기반(基盤) 위에 서게 되었다..

이와 같은 프랑스 학국학의 발전 배경에는 한국의 경제 성장, 민주화, 기술력의 증대, 국제 사회에서의 이미지 제고(提高)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국학 연구의 대상인 한국이 놀라울 정도로 급속히 경제 발전을 이룩하여 2013년 국민총생산에서 세계 제12위의 경제 대국 (CIA, *World Factbook*, 2013), 세계 최고의 기술 대국의 반열에 올랐다. 또한 민주화도 이룩했고, 2000년대 초반부터는 한류 바람도 불어 외국인에 의한 한국 문화 - 문학, 예술,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K-팝 - 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수도 2000년대 초부터 시작하여, 2005년 이후에는 급격히 양적으로 팽창하여 2010년 이후에는 그 상태로 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현재의 교육 인원과 시설로는 다 수용할 수 없을 정도다.

1990년대 말까지 중국학이나 일본학의 1/10 정도의 규모로, 월남학에도 뒤지고 있던 한국학이 이제는 학생 수 면에서 중국학이나 일본학을 바짝 뒤쫓는 수준에까지 도달한 것이다. 그럼에도 쇠도하는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 없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교수진의 부족 때문이다. 이는 한국학이 후발(後發)한데도 큰 이유가 있다. 중국학이나 일본학은 특히 1980년대, 프랑스의 경제 사정이 비교적 좋을 때에 확장되었다. 한국어 학생 수가 증가한 2000년대 후반기에는 프랑스의 경제 사정도 좋지 않아 긴축 재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년 퇴직하는 공무원의 절반 이상을 충원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폐기(廢棄)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교육과 연구 부문만 예외이기는 하지만, 교수 자리의 신설은 대단히 어려워졌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한국어와 문화에 대한 열기는 장기적인 현상일까, 일시적 현상일까? 아니면 얼마나 지속될까? 이에 대한 질문에 확실한 답은 없다. 고등학교 졸업 자격 (Bac) 학위만 가지면 어느 대학, 어느 학과나 마음대로, 1년에 60만원 정도의 저렴한(低廉)한 등록금만 내면 진학할 수 있는 프랑스 교육 제도의 성격상, 모든 대학의 모든 학과의 등록생 수는 해마다 변동이 심하다.

그러나 프랑스의 한국학은 현재와 같은 상태가 앞으로 10여년은 더 지속될 것이 틀림 없어 보인다. 근본적으로,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관심과 외국의 한국학의 장래는, 그 대상(對象)의 주체(主體)인 한국의 국제 사회에 대한 경제, 기술, 문화면의 영향력과 위상(位相)에 달려 있는 것이다.

* * *

종합 현황 :

2013-2014 학년도 프랑스 대학 한국어 교육 및 한국 연구 현황

2013-2014학년도 프랑스 대학교 전 과정 전 학년 등록생 수

--파리 7 대학교 및 동양어대학교 : 학사(3년) – 석사(2년) – 박사(3년) ;
 고등사회과학대학원 (EHESS) – 석사 및 박사 : 1000 명.
 --라 로셀 대학교 (영어-한국어 동시 전공 학사 LEA) : 150 명.
 --리옹 3 대학교, 보르도 3 대학교, 엑스-앙-프로방스 대학교, 르 아브르 대학교
 (제 3 외국어 선택 과목, 대학 학위, 통신 교육) : 600 명.
 (리옹 3 대학교에는 영어-한국어 동시 전공 학사 LEA 학위 과정을 2014 년에 신설할
 예정이며, 보르도 3 대학교에도 LEA 학사 학위 과정의 신설을 논의 중임.)
 --국립학술연구원(CNRS) 및 프랑스 극동학교 (EFEO).
 --그랑드-에콜(Grandes-Ecoles : ENS d'Ulm, Sciences-Po de Paris et Sciences-Po du
 Havre) : 150 명.

계 : 1900 명.

사설 학원

--파리 한국문화원 (무료 강의) 및 세종학원(유료 강의) : 400 명.

교수진

--명예 교수 1 명 (박사 + HDR, 박사 논문 지도를 계속할 수 있음)
 --정교수 2 명 (박사 + HDR) (박사 논문 지도 가능)
 --부교수 3 명 (박사 + HDR) (박사 논문 지도 가능)
 --부교수 13 명 (박사 – 박사 논문 지도 불가)

 현직 전임 교수 18 명 및 (퇴임) 명예 교수 1 명.

*HDR (Habilitation à Diriger des Recherches, 박사 논문 지도 자격 국가 학위). 이
 학위가 있어야 박사 논문을 지도할 수 있고, 정교수에 임용될 수 있음.

임시직 전임 강사

--9 명 (maitres de langue et lecteur : 파리 7 대학교 5 명, 동양어대학교 2 명,
 보르도 3 대학교 1 명, 라 로셀 대학교 1 명)
 --그 외에 시간 강사 여러 명 (여러 학교에서 강의하는 사람도 있음).

참고 자료 – 저서와 논문 (Références bibliographiques)

1. 프랑스의 동양학 및 한국학에 관한 저서와 논문

- AFPEC : *Bulletin de l'Association française pour l'étude de la Corée* (프랑스 한국 연구회 회보), 각 년도.
- AKSE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in Europe) : *AKSE Newsletter* (유럽 한국학 학회 뉴스 레터), n° 1-19, 1978-1995.
- Annuaire de l'Association des anciens élèves et amis des langues orientales* (동양어학교 동창-친우회 연감), Bicentenaire 1995, 1996, 215 p.
- BOUCHEZ Daniel : « Cinquante ans d'orientalisme en France (1922- 1972): les études coréennes » (프랑스의 동양학 50년, 1922-1972, 한국학), *Journal asiatique*, 1973, pp. 247-253.
- FRANK Bernard : « Cinquante ans d'orientalisme en France (1922-1972) : les études japonaises » (프랑스의 동양학 50년, 1922-72, 일본학), *Journal asiatique*, 1973, pp. 255-295.
- HERAIL Francine : « Charles Haguenuer » (샤를르 아그노엘), *Journal asiatique*, 1977, pp. 213-219
- GUILLEMOZE Alexandre : « *Korean Studies in Western Europe and the Institutions involved, 1978-1988* » (서부 유럽의 한국학과 관련 기관, 1978-1988),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Korea Journal*, vol. 29, n° 2.
- Langues'O, 1795-1995. Deux siècles d'histoire de l'Ecole des langues orientales* (동양어학교 200年史, 1795-1995), Paris, 23 x 30 cm., Ed. Hervas, nov. 1995, 499 p.
- LI Jin-Mieung (이진명 李鎭明) : « 30 ans d'études coréennes en France, 1956-1986 : Institution, équipe, organisation des études » (프랑스에서의 한국학 30년, 1956-1986 : 제도, 교육-연구진, 조직), 주 파리 한국 문화원 (Centre Culturel Coreen à Paris) 발행 *Culture coréenne* (한국 문화), n° 13, 1986년 10월, pp. 20-37 ;
- LI Jin-Mieung : « Traduction d'oeuvres littéraires coréennes en français, de 1892 à 1994 - Bilan et problèmes » (프랑스에서의 한국 문학 작품 번역 - 현황과 문제점), *Revue de Corée*, 서울, UNESCO 한국위원회, n° 96, juin 1995, p. 116-133.
- PROST Martine : « L'enseignement du coréen en France et aux Français » (프랑스의 프랑스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 Commission nationale coréenne pour l'UNESCO, *Revue de Corée*, vol. XXI, n° 4, hiver 1989, p. 18-42.
- ORANGE Marc : « Les études coréennes en France » (프랑스의 한국학), Commission nationale coréenne pour l'UNESCO, *Revue de Corée*, vol. II, n° 4, hiver 1970, p. 36-38.
- 이진명 (LI Jin-Mieung 李鎭明) : « 프랑스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역사적 배경과 현황 » (Perspective historique et l'état actuel de l'enseignement du coréen en France), <새국어생활>,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제1권 제2호, 1991년 여름호, pp. 94-109.
- 이진명 : « 프랑스의 한국학 » (Les Etudes coréennes en France), Actes du symposium international sur "Les études coréennes et la vie " (한국학과 생활 문화), 서울, 경기대학교 출판부, 1997, p. 473-499.
- 이진명 : « 1990-2002 년대의 프랑스 한국학 » (Les Etudes coréennes en France dans les années 1990-2002), 제 1 회세계한국학 대회 논문집, 정신문화 연구원, 서울, 2002.
- 이진명 : « 프랑스 국립도서관 및 동양어대학 도서관 소장 한국학 자료의 현황과 연구

동향 » (Etat des ouvrages anciens coréens à la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et à la Bibliothèque Interuniversitaire des Langues Orientales, et les recherches sur la Corée), dans l'acte du colloque sur *The Actual condition and the Prospects for the Preservation of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Korean Study Data*, les 28 et 29 novembre 2002, Hanguk Kukhak Jinheungwon (Korean Studies Advanced Center 국학연구원), Andong, province du Gyeongsang du Nord, Corée du Sud. L'article est publié dans *Gukhak yeongu* (국학연구, *Korean Studies*), n° 2, printemps-été 2003, p. 183-221.

--이진명 : « 프랑스의 한국학 – 기원에서 2006년까지 » *Les Etudes coréennes en France, des origines à 2006*, 『해외 한국학 백서』, 한국 국제교류재단 엮음, 서울, 을유문화사, 2007년 1월, 1 626 쪽, p. 366-390.

2. 17-19세기의 프랑스인의 주요 업적에 관한 저서와 논문

--*Annales de la propagation de la foi* (신앙 전파 연보年報), Paris, Missions étrangères, 1822년에 창간.

--BOUCHEZ Daniel : « Un défricheur méconnu des Etudes extrême- orientales, Maurice Courant (1865-1935) » (잘 알려지지 않은 동양학의 개척자, 모리스 쿠랑 (1865-1935), *Journal asiatique* (1822년에 창간), 1983, pp. 43-150.

--COURANT Maurice : *Bibliographie coréenne* (한국서지 韓國書誌), Paris, Ernest Leroux, 1994-96, 3 vol. + supplément vol.4, 1901.

--COURANT Maurice : *Etudes coréennes de Maurice Courant* (모리스 쿠랑의 한국 연구), Cahiers d'études coréennes, Centre d'études coréennes du Collège de France, n° 1, 1983, 293 p.

--DALLET Charles : *Histoire de l'église de Corée* (한국 천주교회사), 2 vol., Lib. Victor Palmé, Paris, 1874, 12+192+387 p., 595 p. (1186 p.).

--HONG Tjong-ou : *Le Bois sec refleuri* (고목생화 枯木生化), Ernest Leroux, 1895, 192 p.

--HONG Tjong-ou et CHEVALIER Henri : *Guide pour rendre propice l'étoile qui garde chaque homme et pour connaître les destinées de l'année* (각 사람을 보호하는 별을 길조吉兆로 만들며 그 해 운수를 알 수 있는 안내서), Ernest Leroux, 1897.

--LI Jin-Mieung : « La Corée méconnue »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 *in Défense*, n° 86, décembre 1999, revue trimestrielle, publiée par l'Union des associations de L'Institut des Hautes Etudes de Défense Nationale (IHEDN), p. 37-40.

--LI Jin-Mieung : Deux mini-articles [« 파리의 한국인 홍종우 (Un Coréen à Paris (Hong Tjong-u)) », « 파리의 한국 독립운동가들 [(Opposants Coréens en 1919-1921)] », dans *Paris Asie, 150 ans de présence asiatique dans la capitale (1854-2004)*, texte et 450 images, Paris, La Découverte, 224 p.

--MACOUIN Francis : « Des livres coréens anciens a Paris » (파리에 있는 한국 고서古書), *Culture coréenne*, n° 26, Paris, juillet 1991.

--MACOUIN Francis : « Le temple de Heungdeok et le Chikji shich'eyojeol (흥덕사와 직지심체요절) », Paris, *Arts asiatiques*, T. 94.

--Mission (catholique) de Séoul : *Dictionnaire coréen-français* (한불 자전), Yokohama, 1880, 705 p.

-- Mission (catholique) de Séoul : *Grammaire coréenne* (한국어 문법), 1881, Yokohama, 324 p.

--PELLIOT Paul : « Une bibliothèque médiévale retrouvée au Kansou » (관쑤 에서 발견된 중세기中世紀 장서藏書), *Bulletin de l'E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1908,

vol. 8.

--PLANCY Victor Collin de : *Collection d'un amateur, objets d'art de la Corée, de la Chine et du Japon* (어느 아마추어의 컬렉션, 한국, 중국, 일본 예술품), Ernest Leroux Ed., 1911, Hôtel Drouot, du 27 au 30 mars 1911.

--ROSNY J.-H. : *Printemps parfumé* (춘향전 春香傳), Paris, Dentu, 1892, 7,5 x 14,5 cm, 140 p.

--ROSNY Léon de : "La presque-île de Corée et son avenir (한반도와 그 장래)", *Journal des économistes*, 2e série, 1859, t. XXII, p. 413.

--ROSNY Leon de : « Vocabulaire chinois-coréen-ainou (ainou) » (중국어-한국어-아이누어 어휘)", explique en français et précédé d'une introduction sur les écritures de la Chine, de la Corée et de Yézo (Hokkaido), *Revue orientale et américaine*, 1861, t. VI.

--ROSNY Leon de : « Aperçu de la langue coréenne » (한국어에 관한 고찰), *Journal asiatique*, 1864.

--VARAT Charles : « Voyage en Corée » (한국 여행), *Tour du Monde*, 1892, pp. 289-368.

--VARAT Charles, CHAILLE-LONG-BEY : *Deux voyages en Corée* (두 사람의 조선 여행), Paris, Ed. Kailash, 307 p., 1994, MACOUIN Francis의 서문.

--이진명 (李鎭明, Li Jin-Mieung) : « 프랑스 안의 한국 문화 » (Culture coréenne en France), 프랑스 파리에서 발간되는 주간 교민 신문 « 유로 꼬레 » 제 81 호 (2006 년 4 월 11) – 제 105 호 (2006 년 12 월 19 일), 25 회 연재.

--이진명 : « 프랑스 한인 생활사 » (La Vie des Coréens en France), 프랑스 파리에서 발간되는 주간 교민 신문 « 유로 꼬레 » 제 65 호 (2006 년 1 월 5 일) – 제 80 호 (2006 년 3 월 23 일), 12 회 연재.

--이진명 : « 프랑스 안의 우리 문화 (프랑스) » (Culture coréenne en France), 정신문화연구원, «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 », 1992, 제23권, pp. 672-677.

--이진명 : « 프랑스 한인 생활사 » (Histoire de la vie des Coréens en France), « 세계 속의 한국 문화 », 정신 문화 연구원, 1992, pp. 252-266.

--이옥 (李玉, LI Ogg) : "한말(韓末)의 자유주의자 홍종우(洪鐘宇)", <신동아>, 1968, 1월호.

--이진명 : « 쿠랑, 유럽 한국학의 선구자 » (Courant, précurseur des études coréennes en Europe), « 한국사 시민 강좌 » (Citizen's forum for Korean Hystory), n° 34, 서울, 일조각, p. 42-53.

--천혜봉 : <직지 하 (直指下) - 해설> (Jikji – tome 2 – explication),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3.

--혜초 저, 이석호 역 : « 왕오천축국전(외) » (Voyage en Inde du moine Hyecho ; et autres), 을유문고 46, 1984, 182 p.

3. 콜레주 드 프랑스 (Collège de France) 소속 한국학연구소 (IEC, Institut d'Etudes Coréennes) 간행물

A) Mémoires du Centre d'Etudes Coréennes (한국학연구소 간행 논문 - 단행본) :

--*Mélanges de coréanologie offerts à Charles Haguenauer* (샤를르 아느노엘에

증정한 한국학 논문집), 1979, 171 p.

--HAGUENAUER Charles : *Etudes coréennes de Charles Haguenuer* (샤를르 야그노엘의 한국 연구), 1980, 213 p.

--LI Ogg : *Recherches sur l'antiquité coréenne - ethnologie et société de Koguryo* (한국 고대 연구 - 고구려 민족의 형성과 사회), 1980, 303 p.

--YU Won-dong : *Le déclin des marchands privilégiés en Corée, fin du XVIIIe - début du XIXe siècles* (조선 특권 상인의 몰락, 18 세기말 - 19 세기초), 1984, 104 p.

--BOUCHEZ Daniel : *Tradition, traduction et interprétation d'un roman coréen : le Namjong-ki* (한국 고전 소설 南征記의 전통, 번역, 해석), 1984, 237 p. --DESCHAMPS Christian : *Fêtes paysannes et culture populaire - la lutte à la corde en Corée* (한국의 농촌 축제와 서민 문화 - 줄다리기), 1986, 232 p.

--ORANGE Marc : *Archives françaises relatives à la Corée - inventaire analytique*,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프랑스 외무부 소장 한국 관련 古文書 목록) - I, 1987, 446 p.

--LUCAS Alain : *Bibliographie linguistique* (한국어 언어학 도서 목록), 1989, 243 p.

--YI Chun-seon : *Le village clanique en Corée du Sud - et son rôle dans la vie rurale* (한국의 同族村 - 농촌 생활 속에서의 그 역할), 1992, 249 p.

--YI Byeong-geun : *Articles du professeur LI Ogg* (이옥 교수 논문집), 2003, 16+451 p.

B) Cahiers d'études coréennes (한국학 노트 - 논문집) :

--COURANT Maurice : *Etudes coréennes de Maurice Courant* (모리스 쿠랑의 한국 연구), 1983, 293 p.

--COURANT Maurice : *La Corée ancienne à travers ses livres* (책을 통해 본 한국), 1985, 199 p.

--COURANT Maurice : *Répertoire historique de l'administration coréenne* (조선 시대 행정 기구 총람), 1985, X+385 p.

--COURANT Maurice : *Etudes linguistiques coréennes* (한국어 언어학 논문집), 1986, 215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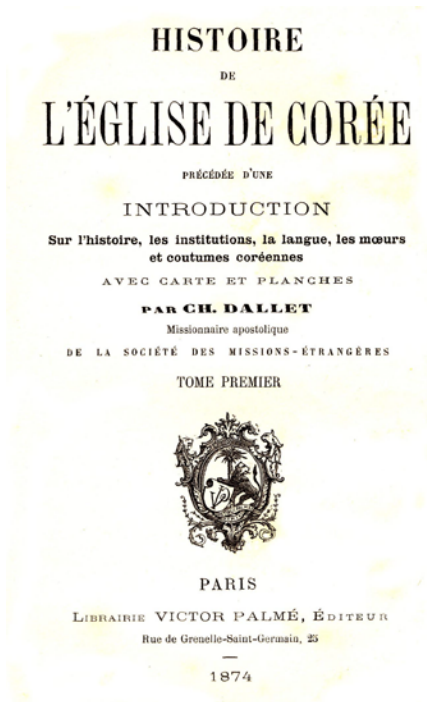
--Etudes linguistiques, 1986, 215 p.

--*Twenty Papers on Korean Studies offered to Prof. W.E. Skillend* (스킬렌드 교수 회갑 기념 한국학 논총), 1989, 414 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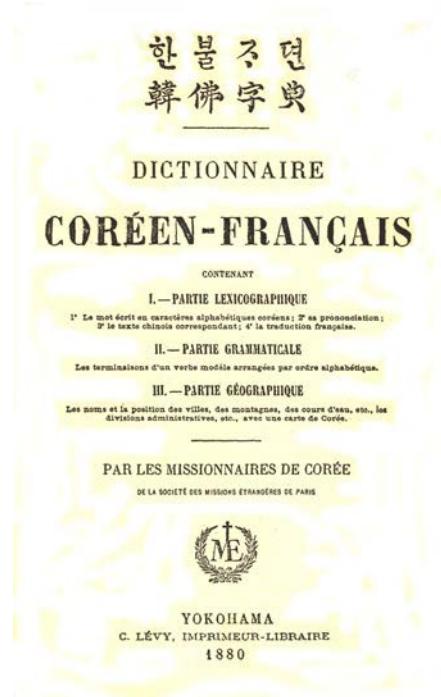
--*Etudes d'architecture et d'urbanisme coréens* (한국의 건축 및 도시학), 1994, 262 p + 사진.

--*Melanges offerts à Li Ogg et Daniel Bouchez* (이옥과 다니엘 부셰 정년 퇴임 기념 논문집), 2000, 549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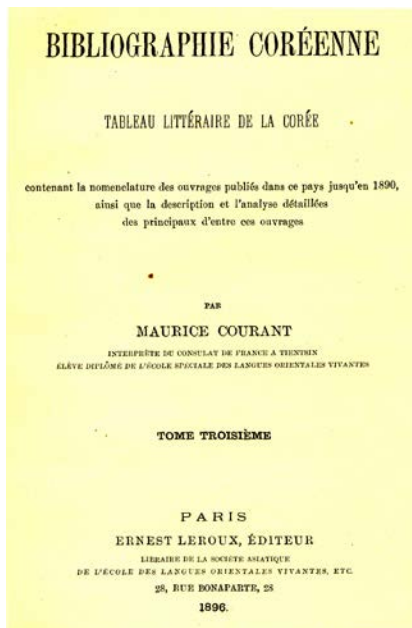
--*Melanges offerts à Marc Orange et Alexandre Guillemoz* (마르크 오랑주와 알렉상드르 기요모즈 정년 퇴임 기념 논문집), 2010, 512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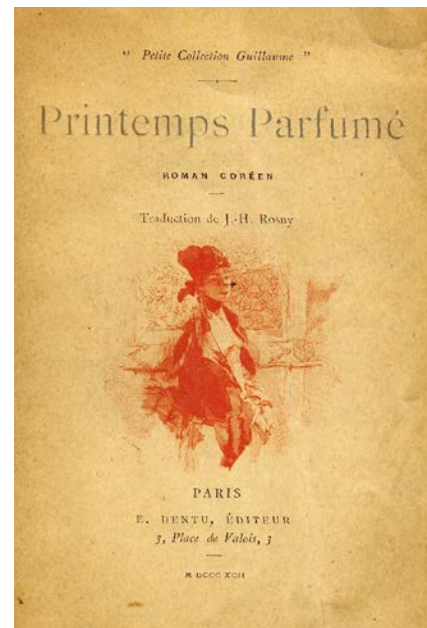
샤를르 달레, « 한국 천주교회사 », 1874,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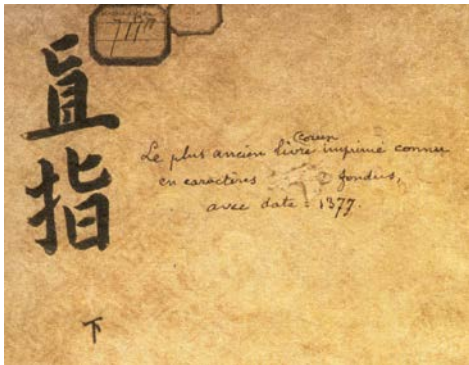
한국 주재 프랑스 천주교 신부들, « 한불자전 », 1880,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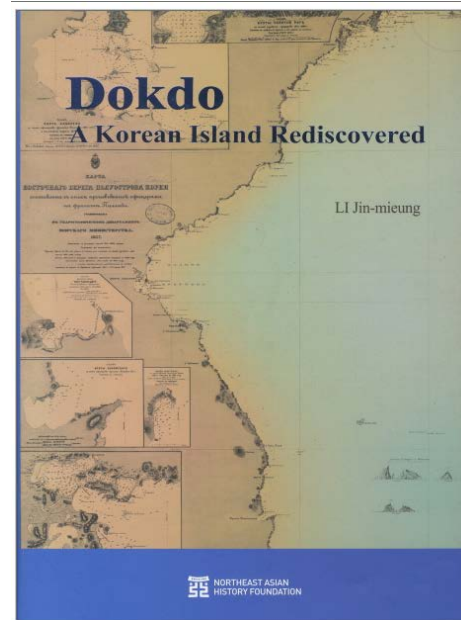
모리스 쿠랑, « 한국서지 », 1894-1896, 1901,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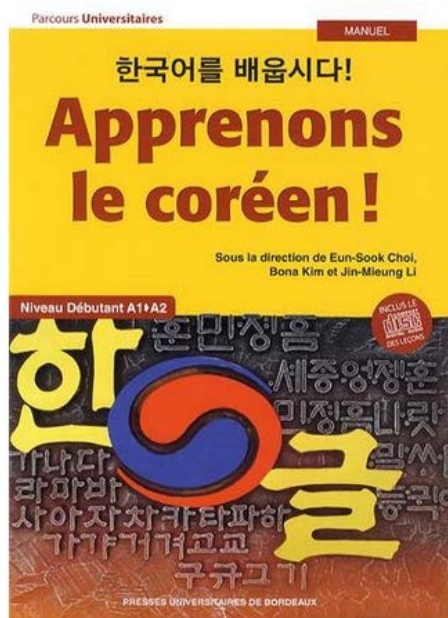
로니 번안, « 춘향전 », 1892,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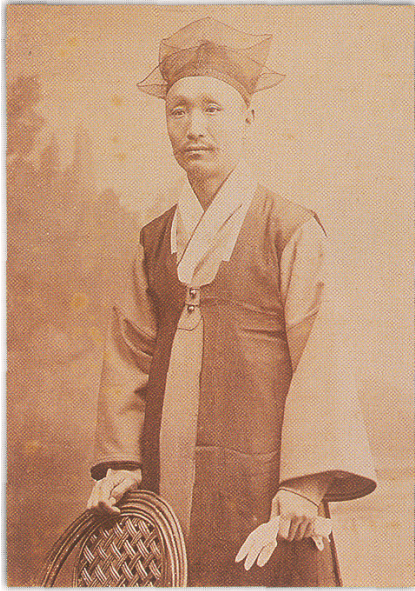
« 직지심체요절 » 하 권, 1377, BNF 소장, 표지.



이진명, « *Dokdo, A Korean Island Rediscovered* », 2012. («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 1998 / 2005의 영역본) 표지. 동북아역사재단 발간.



고교용 한국어 교재 « *Apprenons le Coréen! 한국어를 배웁시다!* », 표지, 2013, 보르도대학 출판부.



1892년, 파리에서 찍은 홍종우 초상화. 기메 박물관 소장.



초대 주한 프랑스 대리공사 콜랭 드 플랑시 (1853-1923).



Maurice Courant en 1892 (Bibliothèque municipale de Troyes).

모리스 쿠랑 (1865-1935).



혜초의 « 왕오천축국전 » 발굴자, 동양학자 폴 펠리오 (1878-1945).



샤를르 아그노엘 (1896-1976) 교수.



이옥 (1928-2001) 교수.

Carte des villes Françaises métropolitaines
Carte de France - Ville



한국어 교육이 있는 도시 (빨강으로 표시된 도시).